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51-952 1982년 10월 12일(화) & 13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 Wednesday, October 12 & 13, 1982

OCT 15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노조불법화에 항의시위
"솔리대리티 부활하라"

폴랜드 노동자들 8백명 수감인사 석방도 요구

(바르샤와)1980년 솔리대리티(Solidarity) 자유노조의 탄생지인 그단스크에 위치한 레닌조선소 노동자들은 지난주 불법화된 솔리대리티의 복권을 요구하며 11일 8시간동안 시위를 벌렸다고 그단스크에서 돌아온 서방TV 보도진들이 전했다.

11일 그단스크와 외부세계와의 텔렉스및 전화선이 단절되었으며, 다른 도시와의 통신망도 모두 끊어졌다.

폴랜드관리들은 노동자들이 솔리대리티를 포함한 모든 기존노조를 불법화한 지난 8일 통과된 노동조합법을 토의하기 위해 조선소에 모였으며 시위를 하려는 움직임은 좌절되었다고만 밝혔다.

국영TV방송은 경찰이 조선소와 주요기차역에 운집한 군중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방 TV보도진들은 수감되어 있는 솔리대리티 지도자 렉·바웬싸의 대형초상화와 「솔리대리티 만세」라고 쓴 플래카드가 조선소 철대문 위에 걸려있고 노동자들이 조선소안 공터에 운집하고 있는 장면을 필림에 담았다.

폴랜드의 다른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데모를 했다는 보도는 없으나 일부 도시와의 통신은 두절되고 있다.

그단스크 노동자들은 이미 쟁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솔리대리티의 부활과 바웬싸를 비롯한 계엄령하에 구속된 모든 인사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폴랜드통신 PAP는 수감자 308명의 석방을 발표했다. 군부지도자 야루젤스키 장군은 9일 상당수의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밝힌바있다. 계엄령하에 구속, 수감중인 인사는 모두 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쿼터 줄어들듯
고실업이 원인, 한국이민 힘들어

(오타와10일=연합)캐나다정부는 계속되는 실업율 증가로 내년도 이민쿼터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로이드·액쉬디 이민장관은 최근 캐나다정부는 캐나디안들에게도 "직장이 귀해" 난민과 이민자의 흡수량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의 주요통신사의 하나인 CP보도에 의하면 액쉬디 이민장관은 매년 캐나다의 이민쿼터를 정하는 주요 요소는 실업율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실업율은 지난 9월말현재 12.2%이다.

오타와정부가 이민쿼터를 줄이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캐나다에 많은 이민을 보내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타격을 줄것이다.

전두환대통령은 지난8월 캐나다를 방문한후 캐나다에 한국이민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바있다.

금년초 오타와정부는 캐나디안들의 직장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능공들의 흡수를 사실상 봉쇄한바있다.

오타와의 내년도 이민쿼터량은 금년도보다 불과 몇천명 많은 134,000내지 144,000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한국의 캐나다이민수는 80년보다 469이 많은 1,426명으로 전체이민수의 1.1%에 해당된다.

한편 캐나다는 1965년부터 81년사이에 총 22,067명의 한국인을 받아들였다.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금메달 딴 엄마선수—캐나다의 데비·브릴이 6일 커먼웰스게임의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아들 닐군을 안고 관중의 환호에 답례하고있다. 데비의 높이뛰기에서의 성적은 1미터88센티. 〈브리스베인—AP〉.

'88 캘가리 올림픽 위원장 방한

(서울12일=연합)캐나다의 캘가리에서 열릴 1988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의장인 프랭크·킹씨가 12일 이원경체육부장관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이장관과 킹의장은 88 동계및 하계올림픽에 대한 한국과 캐나다의 준비상황을 설명한후 스포츠의 공동협력을 합의했다.

킹의장은 한국의 올림픽시설을 돌아보기 위해 11일 서울에 도착, 4일간 머물 예정이다.

킹의장은 10월1일부터 9일까지 호주에서 열린 제16차 영연방올림픽에 참석한후 귀국하는 길에 서울에 들렀다.

앨버타주 공관설치 시일이 걸릴듯
이규현대사 답변

이규현 주 오타와 한국대사는 8일 앨버타주에 한국공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사는 한인 총연합회(회장 오기송)의 "한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차 온타리오에 모인 에드몬톤 및 캘거리 교민회장들이, 교민 8천명인 앨버타주에 한국공관이 없어 교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실정을 밝힌데 대한 본지의 질문에 이와같이 답변했다.

박종길 전 에드몬톤한인회장등 앨버타주 대표들은 "앨버타주와 상원보다는 이미 6, 7년전 자매결연을 맺은 인연이 있고, 캐나다의 지하자원을 많이 도입해가려는 한국정부로서도 앞으로 앨버타와의 교류가 많을것으로 안다. 교민 5천명인 브리티쉬·콜럼비아주에 총영사관이 있다면 앨버타에도 이제 공관1개 정도 둘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고 말했었다.

이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이대사는 "앨버타주 교민들의 불편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일정지역에 공관을 신설하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에드몬톤과 캘거리에 주로 많이 운집하고 있는 앨버타 교민의 수는 최근 시유붐으로 급증했으며, 현재 1년에 3, 4회 뱅쿠버 총영사관 파견 순회영사제도가 있으나 급한 일일 경우 교민들은 하루이상 걸려 뱅쿠버까지 왕복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WORLD SERIES 1982

밀워키·브루어스 대 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

월드시리즈 개막
야구외에도 맥주싸움 볼만

버드라이트대 밀러라이트(Bud light vs Miller light), 10일부터 시작된 월드시리즈는 야구에 맥주싸움이 가세됐다.

캘리포니아·앤젤스에 대역전극을 펼친 밀워키·브루어스는(3승2패) 애틀랜타에게 스트레이트 3승을 올린 세인트·루이스·카디널즈와 '82 월드시리즈를 펼친다.

아메리칸리그의 자웅을 다룬 앤젤스나 브루어스는 브루어스가 캘리포니아에서 당한 2패를 홈구장 밀워키에서 10일 4:3으로 승리, 3승을 올려 복수를 했다.

한편 내셔널리그의 세인트루이스는 애틀랜타와 가진 제3차전 경기에서 6:2로 승리, 3차전을 내리이기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금년도 월드시리즈는 야구뿐아니라 맥주싸움이기도 하다. 세인트루이스는 맥주 버드와이저의 본 고장이며, 카디널즈의 구단주가 버드와이저이다. 밀워키는 팀이름 그대로 (Brewers—양조업자들) 맥주가 주종산업으로 슈리츠, 밀러, 패스트등의 맥주가 생산되고 있다.

월드시리즈는 7전 4선승으로 12일부터 세인트루이스와 밀워키에서 번갈아 열린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일 오후 8:30 세인트·루이스
13일 오후 8:20 세인트·루이스
15일 오후 8:30 밀워키
16일 오후 1:20 밀워키
17일 오후 4:45 밀워키
19일 오후 8:20 세인트·루이스
20일 오후 8:20 세인트·루이스

(월드시리즈 전게임은 NBC와 CTV채널로 중계되며 래디오는 CJCL 1430)

양팀의 선수들의 금년도 메이저리그 성적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양팀 선수명단

St. Louis Cardinals

홈런, 타점, 타율

	홈런	타점	타율
내야수			
Gonzalez, Juno	1	7	.241
Hernandez, Keith	7	94	.299
Herr, Tom	0	36	.266
Ramsey, Mike	1	21	.230
Smith, Ozzie	2	43	.248
Oberkfell, Ken	2	34	.289
포수			
Brummer Glenn	0	8	.234
Porter, Darrell	12	48	.231
Tenace, Gene	7	18	.258
외야수			
Braun, Steve	0	4	.274
Green, David	2	23	.283
Hendrick, George	19	104	.282
Iorg, Dane	0	34	.294
McGee, Willie	4	56	.296
Smith, Lonnie	8	69	.307

투수

	W-L	ERA
Andujar, Joaquin	15-10	2.47
Bair, Doug	5-3	2.55
Forsch, Bob	15-9	3.48
Kaat, Jim	5-3	4.08
Lahti, Jeff	5-4	3.81
LaPoint, Dave	9-3	3.42
Martin, John	4-5	4.23
Mura, Steve	12-11	4.05
Stuper, John	9-7	3.36
Sutter, Bruce	9-8	2.90

Milwaukee Brewers

홈런, 타점, 타율

	홈런	타점	타율
INFIELDERS			
Cooper, Cecil	32	121	.313
Ganter, Jim	4	43	.295
Howell, Roy	4	38	.260
Molitor, Paul	19	71	.302
Money, Don	16	55	.284
Picciolo, Rob	0	1	.286
Romero, Ed	1	7	.250
Yount, Robin	29	114	.331
CATCHERS			
Simmons, Ted	23	97	.269
Yost, Ned	1	8	.276
OUTFIELDERS			
Brouhard, Mark	4	10	.269
Edwards, Marshall	2	14	.247
Moore, Charlie	6	45	.254
Oglivie, Ben	34	102	.244
Thomas, Gorman	39	112	.245

PITCHERS

	W-L	ERA
Bernard, Dwight	3-1	3.76
Caldwell, Mike	17-13	3.91
Fingers, Rollie	5-6	2.60
Haas, Moose	11-8	4.47
Ladd, Peter	1-3	4.00
Medich, Doc	5-4	5.00
McClure, Bob	12-7	4.22
Slaton, Jim	10-6	3.29
Sutton, Don	4-1	3.29
Vuckovich, Pete	18-6	3.34

오늘의 예금금리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푸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2%		11.5%
90일	12.5%		11.5%
180일	12.75%	12.75%	12.0%
365일	12.75%	12.75%	12.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사업보험, 상점보험
R·R·S·P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희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 생명, 자동차, 화재보험, R·R·S·P
B) 868 0922
R) 622 5147

개업인사
한인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블루어상가 (한국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OPEN하여 한인교포여러분들을 성심 성의껏 봉사코자 하오니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변호사 ——
RALPH M. LEVINE B.A.
(BARRISTER AND SOLICITOR)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 : 533-8539

IATA
연말·연초 특별봉사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 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 개방.
단: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DeWitt
JEWELS LIMITED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Reg. 1,000.00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언론자유화·의회활성화 요구

한국야당, 정당정치 발전돼야

(서울)한국의 민한당등 야당의회지도자들은 5일 의회기능을 활성화시켜 정치과정을 현대화 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태구민한당부총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현대화의 지름길은 국민이 모두 정치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선 언론의 자유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자유가 봉쇄되면 강압에 의한 침묵만이 존재하며 이는 새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다』고 말한 그는 또 『민한당은 언론자유를 보장키 위해 언론기본법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야당은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것은 언론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부총재는 이어 『국민들은 의회내서 무질서한 행위를 제한하는 현 헌법이 자유로운 의회토의를 억제시켜 정치에 관심을 잃었다』면서 『의회기능이 강화돼 의회가 행정부의 권력남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당의 신철균사무총장도 의회연설에서 이부총재의 발언과 유사한 요구를 하면서 당정치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허용돼야 하며 언론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고대가구생산

킴스·갤러리 착수

토론토 웨스톤X에글린턴의 교포화상경매자상 킴스·갤러리(김석환)은 최근 한국의 나전칠기(자개) 기술자 2명을 초청해와서 본격적인 한국고전가구 옷장·경대·자개제품등의 제조에 착수했다. 공장은 이탈리안 큰 가구점 Canto(에글린턴X길) 공장을 사용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우편마감일 발표

한국, 카드 12월4일

(오타와)우편공사(Post Office)는 크리스마스 우편물 발송마감일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유럽행 선박소포는 10월16일까지(단, 영국과 북아이랜드는 11월20일) 발송해야 크리스마스 이전에 도착이 보장된다.

항공소포의 경우 호주, 아프리카및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마감일은 11월20일이며 유럽및 중남미지역은 11월27일. 이들 지역에 대한 항공카드 마감일은 12월4일.

영국및 북아일랜드행 항공카드의 마감일은 12월11일.

국내우편물의 경우, 타운밖으로 보내는 카드와 소포는 12월13일까지이며 지역내 카드는 12월17일까지이다.

우편공사는 이같이 크리스마스 우편물 발송마감일을 발표하면서, 북미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송하는 카드는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카드봉투를 봉하지 말고 봉투에 "printed papers"라고 표시를 해야 할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내에 발송하는 카드는 반드시 봉인해야 한다.

크리스마스카드 요금은 캐나다국내는 30센트이며 미국은 35센트, 북미외 지역의 서장은 우표값이 60센트이나 카드(미봉함)는 항공의 경우는 45센트이며 배로 부치면 30센트이다.

보광한약방 불루어로 이전

스카보로에서 수년간 영업해온 보광한약방(김남질)이 외환은행지점 2층(627 Bloor St. W. Tor.)로이전 12일부터 확장 영업한다.

정영수태권도장 관원늘어 확장이전

◆사범 정영수씨

지난 18일 보스톤 세계평화시대회등에 관원을 데리고 시범을 보이는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온 교포 태권사범 정영수씨가 늘어나는 관원들을 흡수하기 위해 도장을 확장이전했다.

오는 16일 새도장 (546a St. Clair)에서 리셉션을 벌일 정사범은 그동안 캐네디안문하생을 중심을 태권무술을 전해왔으나 앞으로 교포자녀들에게 도장을 활짝 열어 놓겠다고 한다.

새도장 연락처는 652-0000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관람소감〉

국립무용단 공연을 보고서…

김용순 (무용가)

학창시절 교수들의 엄포와 권유를 못이겨 새로 세워진 장충단 국립극장의개관기념 국립무용단 공연을 본후 8년만에 이번 토론토공연을 많은 기대와 무어라 표현키 어려운 감회와 흥분 속에서 관람했다.

쉴새없이 휘몰아대는 장단과 박력있는 터치와 율동은 과연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문화예술로서의 자부심과 절로 터지는 탄성속에서 몸과 마음이 들썩거려짐을 참을 수 없었다.

악사들의 등장, 착석과 동시에 생음악 연주와 함께 「화관무」로 1부의 막이 올랐다. 18명의 아름다운 무용수들의 현란한 의상과 우아한 동작은 관객들을위압하고, 뒤이어 국수호 씨와 이문옥양의 듀엣으로엮어진 「사랑가」는 옛 선조들의 은근한 애정표현을보여주었고, 한국무용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부채춤」은 중간 중간 만들어 지는 꽃모양과 무용수들의 도는 속도 따라 많은 박수를 받았고, 5명의 남자무용수로 이어진 「처용무」는 옛날 동해 용왕의 아들인 처용의 모습으로 그의 아내를 홈친 신이 처용의 깊고 넓은 마음씀에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처용의 모습이 그려진 곳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백성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 아귀를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였다.

오색으로 동서남북, 중앙방향을 나타내며, 추어진 「처용무」는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 무용의 뿌리를 보는 것같아 좋았다.

장고끈을 느슨히 매고 궁편과 채편을 붙잡고 장구를 좌우로 휘두르며 등장한 「장고춤」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밖의 변모로 전율과 함께 기막힌 감동을 주었다. 불교의식 무용인 「관등놀이」, 승무, 「바라춤」, 북춤으로 엮어진 중국수호씨의 승무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한국무용의 특색인 "정중동, 동중정"의 맛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힘차고 굵은 선, 어깨춤과 감정표현은 여성에게서 느낄 수 없는 웅장함과 깊이를 볼 수 있었고, 명주로 만들어진 장삼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같았다.

「바라춤」 역시 남성적이고 힘찬 모습에 한국무용의 발전을 보는 것같아 좋았다.

6명의 질서정연하면서도 빠르고 요란한 「3고무」는 보는 이의 오장을 뒤흔들고, 숨을 멎게한 뒤 1부막이 내려졌다.

진도 해안가에서 베풀어졌던 죽은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올려 준다는 「고풀이」로 2부는 시작되었다. 천장에서부터 늘어진 흰천과 하얀 상복을 입고 마치 이곳의 취어·리더스들이 사용하는 팜팜같이 생긴 하얀 창호지로 만든 것을 흔들면서 보여준 고풀이에 남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 보내는 마음과 정성을 보는 것같았다.

「평산탈춤」의 미얄과장이 청량제격으로 코믹하게 엮어지며 간간이 나누어지는 대화는 선조들의 해학과 풍자를 보여주었고, 견우 직녀의 슬픈 사랑을 그린 「선녀무」가 추어졌으나 선녀들의 춤이 강조되어 끝장만 본 것같은 기분이었다.

「풍년가」, 「강강수월래」, 「살풀이」는 여인네들의 소박한 모습과 감추어진 정열을 한국무용의 우아한 몸짓 발짓 손짓및 섬세하고 가련한 동작들의 맛을 보여주고, 마지막의 농악은 우리 한국무용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농기와 징·꽹과리·소고·실장고·짧은 상모, 긴 상모, 날나리의 총출연은 관객들의 혼마저 그들 안에 흡수해 갔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안타까운 점 몇가지를 들자면 우리 무용의 특이성, 아름다움, 테크닉의 완벽성만을 무대위에 강조하다 자칫 흥행성이 주가 되어 우리 민족의 풍속이나 얼을 전할 기회가 없어지지 않나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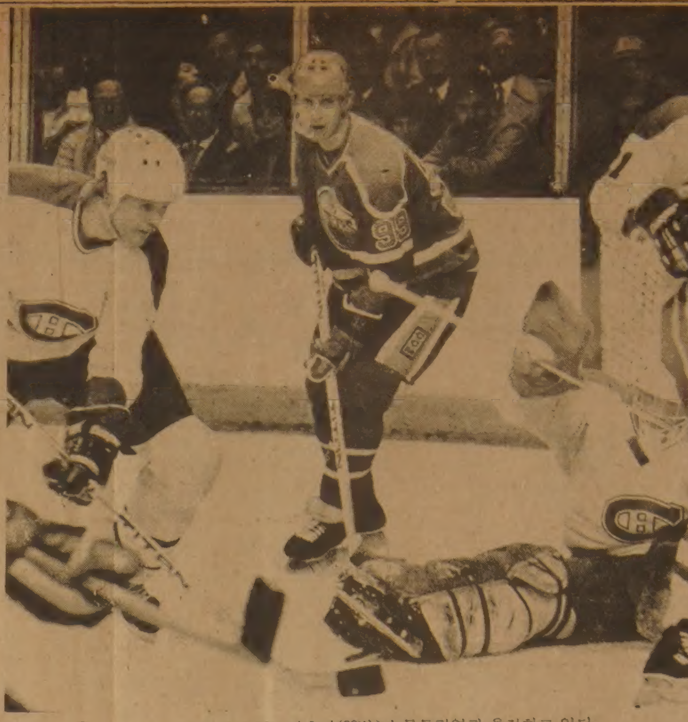
8년전 미국 아틀랜틱시티 컨벤션·홀에서 있었던 자마이카 국립무용단의 공연을 여지껏 잊지 못한다. 그들은 무용을 통해서 우리네와 같은 동류감정과 풍속을 관객으로부터 끌어내어 자기네들을 깊이 인식시키고, 애착을 가지도록 유도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우리 민속무용은 자연발생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마을의 배경 속에서나 계절의 구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 살아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 고전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립무용단만은 단원 개개인이 가진 숨겨진 재능이 캐어지고, 키워져서 모든 것이 기계적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마음껏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 좋은 기회가 연일 만당이 되지 못하여, 3개월의 긴 공연여행의 피로와 근육통등으로 신신파스(?)로 여기 저기 누더기진 몸과 고통을 참으며 사명감 속에서 무대와 분장실을 바쁘게 오가던 친구와 단원들에게 큰 희열과 기쁨을 주지 못함이 안타깝고 죄스럽기만 하다.

◁정 정▷

10월9일자 본보 독립기념관 회사자 기사중 "박경배 $100"는 "박형배 $100"로 바로잡습니다.


◆오일러의 웨인그레츠키(99번)가 몬트리얼과 운전하고 있다.

〈스포츠 단상〉

프로하키 NHL 시즌개막

아일랜더즈 유력한 우승후보

오일러·노르딕·미네소타가 2진

립스는 아직 암담, 신진에 기대

단풍이 무르익자 하키시즌이 오픈됐다. 하키시즌 오픈이란 내년 5월의 스탠리컵때까지 계속될 하키시즌은 프로하키의 진수 NHL (National Hocky League)로 부터 5세짜리 끄마하키리그까지 일제히 시즌이 시작됐음을 말한다.

세계하키의 양대산맥은 소련을 중심으로한 유럽세와 캐나다를 중심으로한 북미세를 꼽을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각도시에는 NHL소속의 21개 프로하키팀이 흩어져 있다. 이밖에 각팀 3-4개의 마이너리그팀을 거느리고 있다. 팀수로는 미국이 14개, 캐나다가 7개로 미국이 팀수에서 2배이나 선수들의 출신국적으로 아직은 캐나다압도적으로 80%가 넘는다.

미국출신 선수는 단 5%정도 불과하고 나머지 15%가 스웨덴·체코등 유럽선수로 채워진다.

21개팀이 어울린 NHL의 각팀의 전적과 토론토교민들의 관심인 메이플립스 82-83년 시즌을 전망해보자.

82-83년 NHL은 작년과 게임방식은 같으나 콜로라도·록키스가 프랜차이즈본거지를 뉴저지로 옮겨 이름도 악마들(Devils)로 바꾼 것과 디비죤 캠벨에서 웨일즈로 옮겨 토론토와 같은조에 있던 위니펙이 콜로라도 자리로 들어간점이 다르다. 2디비죤과 4개조로 나뉜 각팀은 시즌중 80게임씩 가지며 각조 4개팀씩 16개팀이 내년 4월의 플레이오프에 진출 스탠리컵을 노리게 된다.

금년도에도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는 스탠리컵 3연패(79-81)의 뉴욕 아일랜더스이다. 마이크·보시, 클락·길리, 트로치에등 NHL대표급 공격진에다 골리 빌리·스미스와 주장 메니스·포핀등 물샐틈이 없는 팀이다.

2선그룹으로는 체코의 망명선수 스태스니 3형제가 있는 퀘벡·노르딕과 미네소타, 에드몬톤 보스톤을 꼽을수 있다. 작년에 몬트리얼, 보스톤을 연파 준결승까지 오른 퀘벡은 NHL최고 공격진이라는 피터, 아톰, 마리안·스태스니 3형제 이끄는 포드진을 중심으로 노장·신인선수들이 조화를 어루었고 선수의 기량이 최고조에 달했다. 웨인·그레츠키의 에드몬톤 오일러즈 또한 우승후보로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렉, 그레츠키등의 기량은 우승후보로 유망하다. 다만 노장이 적어 경험이 없는것이 흠이다.

80년 준우승까지했던 미네소타는 수비진이 약한게 흠. 노장선수 미들톤이 이끄는 보스톤·브룬즈도 우승대열에 끼인다. 하키의 영웅 보비·오의 전성시대를 되찾으려는 보스톤의 우승가능성은 3~4년전부터 키워온 젊은 선수들의 활약여하에 달려있다.

이밖에 3선그룹으로 몬트리얼, 위니펙, 밴쿠버, 세인트·루이스, 금년도 선수층을 대폭 개편한 워싱턴 저력의 필라델피아 6개팀을 꼽는다.

몬트리얼은 해마다 제1의 우승후보로 꼽혔으나 180게임이나 되는 장기전에 견딜만한 체력이 달린다. 게이·라플레, 래리·로빈슨이 이끄는 몬트리얼은 70년대중반에는 아일랜더즈 못지않은 팀이었으나 근년에 들어서는 정규시즌을 2-3위로 끝내고도 막상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 초반에 떨어져 나가는 불행을 당했다. 금년에도 스카웃시장에서는 수비 랭웨이를 주고 리안월터를 얻었으나 전체적수준에서는 작년과 대동소이하다.

작년도 준우승팀인 밴쿠버나 급상승하는 위니펙이 우승대열에서 탈락되는 이유는 예년에 보면 급성장한 팀이 다음해에는 좋은 성적을 못얻기때문이다.

그밖에 버팔로, 뉴욕·레인저스등이 있으나 이들팀은 우승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의 관심인 토론토·메이플립스를 보자. 립스는 우승은 4-5년 앞으로 내다보면서 스카웃시장에서는 젊은 선수들에 주력하고 있다. 작년에 19위를 차지, 쫓겨 날뻔했던 마이크·니콜락감독은 구단주 해롤드·바라드로 부터 1차의 용서를 얻어 젊은선수를 키워 상위진출을 노리고 있다. 립스 진용에 새로 가세한 선수는 마이크·가지스키로 마이너·리그인 아메리칸리그 뉴·브룬스위크에서 36골 82어시스트로 118포인트로 공격1위를 기록했던 선수이다.

또하나 특기할것은 워싱톤·캐피탈이 2년전에 방출했던 골리 마이크·팔마치어의 컴백이다. 아직도 무릎부상에서 회복된지 얼마안된 마이크는 마이너리그의 세인트·캐더린팀으로 가서 연습중에 있다.

작년에 51골을 기록한 리·바이브, 신인 센터 빌·텔라고등이 있고 스웨덴 출신의 보야·샤밍이 수비진을 맡으며 골리 버니·라록크 수문장을 맡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적 밸런스에서는 다른팀에 비해 미흡하다. 토론토팀의 약점은 최근에 홈게임에서 항상고전한다는 것. 지난 9일 NHL 최약팀인 뉴저지·데빌과의 경기에서도 5:1로 리드했었으나 다시 4점을 내줘 5:5로 비기고 말았다.

토론토에서 생활하려면 메이플·립스가든에 한번쯤 구경가는것도 뜻있는 일이다. 경기는 못해도 관중은 항상 만원이므로 미리 미리 예약해야 한다.

홈게임은 전부 TV중계되며 어웨이게임도 때때로 중계된다.(CBC 또는 CHCH)

〈유승민〉

◆토론토 메이플·립스의 주전선수들.

◆골리 바니·라로크

◆골리 마이크·팔마티어

◆윙 빌·멜라고

◆센터 리·바이브

◆윙 짐·베닝

◆수비 보야·샤밍

메이플·립스 홈게임 스케쥴

Sun. Oct. 17	Guelph
Sat. Oct. 23	North Bay
Sun. Oct. 24	Ottawa
Sat. Oct. 30	Sault Ste. Marie
Sun. Oct. 31	Windsor
Tues. Nov. 9	Kitchener
Fri. Nov. 12	Oshawa
Sat. Nov. 13	North Bay
Fri. Nov. 19	Belleville
Fri. Nov. 26	Peterborough
Sat. Nov. 27	Sudbury
Fri. Dec. 10	Cornwall
Sat. Dec. 11	Ottawa
Sat. Dec. 18	Sudbury
Sun. Dec. 19	Sault Ste. Marie
Mon. Dec. 27	Brantford
Sat. Jan. 1	Kitchener
Sun. Jan. 2	Peterborough
Sat. Jan. 8	Kingston
Sun. Jan. 9	Belleville
Sat. Jan. 15	Ottawa
Sun. Jan. 16	Kingston
Sat. Jan. 22	Oshawa
Sun. Jan. 23	Windsor
Sat. Jan. 29	Cornwall
Sun. Jan. 30	Brantford
Sat. Feb. 5	Guelph
Sun. Feb. 6	Belleville
Tues. Feb. 15	London
Fri. Feb. 18	Cornwall
Sat. Feb. 19	Kingston
Tues. Feb. 22	Oshawa
Tues. Mar. 1	Peterborough
Sat. Mar. 5	Guelph
Fri. Mar. 11	Oshawa

"미와 꿈의 전당"

웨딩·드레스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인생의 꽃다운 시절을 장식하는 최고의 환희는 젊음의 꿈이 만개하는 결혼이라 하겠읍니다.

여기 그 보람찬 꿈을 맺게하는 웨딩 드레스 가게를 차려, 이민현장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길로 출발하는 아가씨들의 복된날을 우아하고 품위있는 웨딩·드레스로 감싸 드리고자 하오니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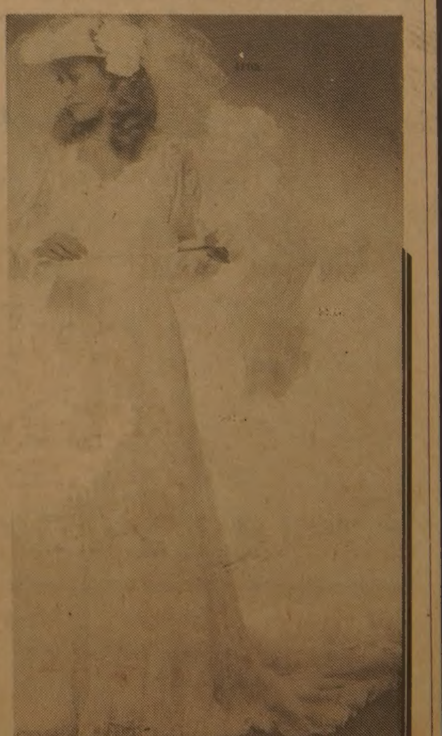
실비아·윈 드림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청첩장.

※결혼을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하신 모든것을 제공합니다

월-목 오전8시~오후8시 금-토 오전8시~오후9시 일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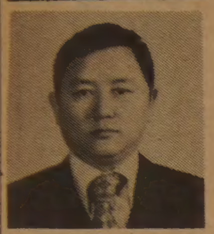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 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5분간의 落書

하얀 종이 위의 낙서

홍기만(캐나다한국문협회원)



◆홍기만 씨

하얀 종이를 대할 때마다 거기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인가 끄적이고 싶다. 쓰고 싶기도 하다. 어떤땐 이민생활 속에 묻혀 이제는 거의 잊혀진 이름들을 더듬으며 어줍잖은 이민살이 사연을 적어 보내기도 한다.

전쟁땐 피난길을 전전하면서도 하얀종이가 철해진 대학노트를 뭐 그리 소중하다고, 무한한 가능성이 잉태된 하얀 종이의 노트라며 품에 안고 다녔는지—.

얼핏 종이배가 떠오르기도 한다. 어린 환상의 꿈을 종이배에 실어 냇물에 띄워 보내던 시절이 있었지. 이젠 아무도 종이배를 만들지도 않으며, 종이배를 띄워 보낼 냇물도 없고, 그러한 어설픈 정서를 찾거나 찾으려 하지도 않지만, 행여 그럴라치면 QUEEN ST. 101번지로 보내야 한다고 수군거릴 것이다.

흔히 이르기를 종이는 문명의 서녀라고 한다. 또한 종이소비량은 한 국가의 문화수준과 그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 곧잘 인용되기도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갈대의 일종인 PAPYRUS라는 식물줄기를 엷게 썰어 붙여 글씨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했다. 영어의 PAPER라는 단어는 여기에 어원을 둔다. 그러나 실용적인 종이를 최초로 발명, 사용한 것은 2세기초엽 중국에서였고, 그후 차츰 아랍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5분간의 낙서」라는 난(欄)으로 하얀 종이위에 낙서를 끄적여 보련다.

「하필이면 낙서야.」 주위에서 피식 웃는다.

하지만 내겐 부담이 없어서 좋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하려는 뜻은 아니다. 그저 낙서라는 흔해빠진 단어를 빌려 한낱 이민자의 소박한 애환을 부서지지 않게 옮겨 보려는 조그마한 의도일 뿐이다. 어떨땐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잡필이 그리울 때도 있고….

하긴 대학가 화장실 벽에 휘갈겨진 낙서에는 빛나는 대목이 가끔 눈에 뜨인다. 그건 시도 산문도 아니지만—. 누구의 말처럼 「뉴톤의 사과의 원리」는 화장실에서도 발견될 수 있었다는 번뜩이는 재치가 거기 있기에 말이다.

우리네 이민1세들은 「이민의 이유」를 거개가 이렇게 말한다.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조금은 맞는다. 하나 간혹 이러기도 한다. 「욕구불만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어쩌면 솔직한 표현인지 모른다.

이민2세들은 1세를 이렇게 공박한다. 「우릴 위해 이민 왔다구요? 새빨간 거짓말!」

어떤 소녀가 내게 묻는다. 이민을 왜 왔냐고.

「하얀 종이 한장 때문에 이민이란 세계로 밀려났죠.」

「그건 추방령장은 아닐테고…」 고개를 갸우뚱한 소녀는 다시 묻는다. 「아, 이민비자 허가서란 종이 한장을 말하려는 거죠? 싱거워요, 그런 얘긴….」

「아뇨.」 나는 웃는다.

「난 중학교때도 대학때도 천재가 아니었거든.」

「그래서요?」

「내가 수재나 천재였다면 이민을 왔겠어요? 제 나라서 빛을 보지.」

「그게 종이 한장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있죠. 범인과 천재는 종이 한장 차이라잖아요.」

나는 웃는다.

〈시〉

하늘 아래 우리는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조정대(문협회장)

이제 해바라기도
해 따라 돌지 않는 세상이지만

지구 위에 어느 것
어울리지 않는 것 없어

가슴 젖도록 평화로운
스위스를 떠나며
당신을 생각하네.

산과 구름이 동양화로 얼린
중부 알프스산맥
만길 깊은 계곡 아래서 만난
질푸른 비취빛깔의 호수와

하늘 속에 떠있는 산과 산
사이에 걸린
구름같은 다리(橋)너머로 넘보이는
한 줄기 인간의 의지여.

유럽 도처에서 만나고 헤어진
이름 모를 이들의 정겨운 미소,
오래 그립고

로마와 플로렌스와 그리고 파리가
밤에도 대낮같이 잠들지 않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빼어난 솜씨와
그가 바치는 지순한 기도 탓인 것같아

당신 안에 우리 모두 이웃이라더니
땅위에 어느것 어울리지 않는 것 없어
돌아와 당신 앞에 고개 숙이네.

▲멋진 해저다이빙용의상—이태리 밀라노에서 열린 1983 여름용 패션쇼에 클라우드·몬타나가 멋진 해저 잠수할때 입을 수 있는 의상을 내놓았다. 낚시용갈퀴을 다리에 매놓고있다. 〈밀라노. 이태리—AP〉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흉기와 사나이

〈85〉

얼굴없는 死者 ⑨

크고 무거운 박스속에는 괴상자의 몸통이 들어있었다. 운전사의 말은 확실성을 더해갔다.

「뭐라고 대답하던가?」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읍니다. 그러면서 깨질지모르니까 조심히 다뤄달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역에 가서 부쳤나?」

「네, 부쳤읍니다.」

「어디로 부쳤나?」

「한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부치는 짐이었읍니다.」

「어디 어디에 부쳤나?」

「대전…부산…대구…여수…그리고…」

「천안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천안에도 하나부쳤읍니다.」

「그래 얼마를 벌었나?」

「이것 저것 빼고 만오천원 정도 떨어졌읍니다. 저녁때 회사로 돌아가니까 그사람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읍니다. 부탁한 짐을 잘부쳤는지 궁금해서 걸었다고하길래 잘 부쳤다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읍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나?」

「귀찮아서 그랬읍니다.」

「고맙네. 강남에서 짐을 실었다고 했는데, 수고스럽지만 그곳까지 함께 가주지 않겠나?」

「네, 좋습니다.」

수사관들 범행현장 압축… 江南으로

朴男 그림

그들은 센터를 나와 강남으로향했다.

청년은 짐을 실었던 곳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곳은 40대의 사나이가 라면박스를 사간 곳으로부터 3백미터쯤 떨어진 지점이었다.

즉시 센터에 비상이 걸렸다.

센터의 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벽에 대형지도가 걸렸다. 그것은 강남지구를 세분한 지도로 각 지역마다 넘버가 붙어 있었다.

「범인이 라면박스를 사간 지점을 A라고 부른다.」

대머리가 지휘봉으로 한 지점을 가리키자, 수사요원 하나가 그곳에 검정사인펜으로 A라고 적었다.

「박스를 용달차에 실은 지점을 B라 부른다.」

지도에 B가 적혔다.

「A를 중심으로 반경1킬로의 원을 그린다.」

지도 위에 축소된 원이 하나 그려졌다.

「B를 중심으로 반경1킬로의 원을 그린다.」

또 하나의 원이 그려졌다.

「두개의 원이 겹치는 부분이가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범행은 두개의 원이 겹치는 지역에서이루어졌다고보아야 한다.」

두개의 원이 겹치는 지역에 빨간 사선이 그어졌다.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문.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1391 WESTON RD

훼밀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三國志 〈478〉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신장개업

고급 레스토랑 GRANADA에서 만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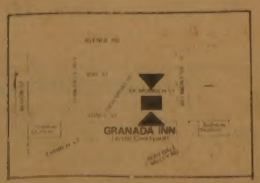
—은은한 멜로디의 뮤직.
—우아한 분위기.

아래와 같이 오픈리셉션에 교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영규 드림

일시 : 1982년10월16일 (토) 오후6시

*개별초청을 생략하고 지면으로만 알리오니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920 Yonge St. ☎ 923-3060
(North of Bloor)

"저소득층 稅부담 줄여야"

國會 經濟문제 질문·답변

"財閥중점政策 是正하라" 질문
"秋穀수매 農民손해없게" 답변

국회본회의는 정치외교안보문제에 이어 8일상오 金相浹국무총리 金俊成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經濟문제에 대한 첫 對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趙炳鳳(국민) 鄭順德(民正) 李炯培(民韓) 李龍澤의원(議政) 등이 나서 不況打開와 최근의 잇단 경제조치의 背景, 새해예산의 문젯점, 外債, 稅制개혁등 경제문제 전반에 관해 추궁하고 앞으로의 對策을 물었다.

◇8일하오 國會본회의에서 의원들이 經濟전반에관해 질문을하는동안 金相浹국무총리⑤와 金俊成부총리가 답변준비를하고있다.

국회는 9·10일 이틀간 休會한뒤 11일 경제분야에대한 對정부질문을 계속한다.

金총리는 8일 국회답변에서 『정부는 앞으로 정책수립과정에서 국민의여론을 최대한 존중,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신중히처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5공화국의 정치구호와 현실과의 乖離현상을 전는 질문에 「동감」이라고 전제, 『轉換期 變革期에는 理想과 현실이 맞지않는경우가 있는데 이를접근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사회부조리현상에 대해서는 『전환기의 불가피한 현상으로모든 세대 모든연령층이 다함께참가, 우리의 부족한힘을 합심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말했다.

金俊成부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外債에 언급, 『82년8월말현재 外債총액은 3백58억달러로서 금년말에는 3백60억달러수준에 달할것으로 推定하고 『그러나 금년말까지의 外債예상總額은 당초예상했던 3백95억달러에서 40억달러정도 크게감소된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外債감소추세로나가면 오는 86년말에는 당초예상했던 6백45억달러에서 4백50억~5백억달러수준으로 축소될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金부총리는 外債감소추세는 『식량, 기름, 소비재등에서의수입구조개선과함께 올부터 各부처와 사업체등에서 外債감소를위한 總力戰을 편결과로서 元利金상환부담률도 81년도 13·7%, 82년도 14·8%에서 83년도엔 14·1%로 세계은행기준으로,위험수위인20%를크게밑도는 건전한상태에있다』고말했다.

그는 秋穀收買에 언급,『수매량은 작년수준이상으로 수매할것이며 시기도 앞당길계획』이라면서 『收買價는 세계가 식량을 무기화하는 추세여서 우리정부도 식량만은 자급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마련하고 있기때문에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물가의 동향과 생산비등을 감안해 결정한것』이라고 말했다.

국내건설경기에 대해 金부총리는 『주택경기가 되살아나고있고 許可면적이 40%이상회복됐으며 아파트등 공공주택의 讓渡率도 30%~40%로 급격히늘어나고 있기때문에 금년말까지는 20만호의주택이 건설될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내년도엔 24만~26만호의 주택이 건설될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에 5천5백억원의 國債발행계획에 관해 『國債는 公金利나 예금금리보다 높게하고 전국금융기관창구를 활용토록하겠으며 國債발행은 민간경제에 압박을 주지않도록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농업災害보험제도에 대해 金부총리는 『사전에 통계자료정비, 국가재정의 뒷받침등 여건조성을 해야되나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姜慶植재무부장관은 『市中은행의 정부株式매각으로 은행의 民營化를 추진하고있지만 민영화가 바로 은행경영의 자율화로 직결되는것은아니며 관계인사들의 의식구조개선의 필요성등 상당한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기관大株主의 獨占弊端을 방지하기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도모하고 大株主의 의결권을 上限制로 제한하는한편 任員의 不實경영에대한 책임등을 묻는 제도적장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短資회사신설에 따른 內認可는 3개이며 內認可신청중인것은 5개로 旣存短資회사 7개사가 모두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점을 감안, 앞으로 지방에 단자회사설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朴鍾汶농수산부장관은 농村의 戶當평균부채는 43만7천원으로 이의 償還은 재정형편상 곤란하다고 말했다.

질문에 나선 趙炳鳳의원(국민)은 赤字인 새해예산안을 철회하여 實稅收수준의 균형예산으로 재편성하고 5차5개년계획도 아울러 白紙化, 非常財政안정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현재 外債의 殘高는 GNP의 54%인 3백35억달러이고 5차계획기간중 4백65억달러가 또 들어올경우 5백~6백억달러가 累積된다고 우려하고 ▲저소득층의高負擔 高소득층의 저부담이라는 조세의 逆進的인상을 是正 ▲所得稅人的公濟限度인상▲부가세폐지등을 주장했다.

鄭順德의원(民正)은 『최근의 일련의 경제조치는 절차와과정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 『市銀民營化에 있어 큰부채를지닌 大企業체에 맡김으로써 이들기업의 私金庫化를 추진케했으며 또 短資회사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규제완화가 私債陽性化라는 본래취지와는 달리 재벌들의 재산증식을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李炯培의원(民韓)은 최근의 잇단 經濟合理化 6·28조치를 비판, 경제정책을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國債발행을 취소하는한편 일반행정비를 10%이하로 억제하고 사회보장비를 10% 더늘릴것을 촉구했다.

「억울한 獄살이」 補償통일

支給日算定기준 例規제정

大法院

들쭉날쭉이던 「억울한옥살이」(한국일보9월24일字1면보도)가 대법원의 법률해석에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돼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금을 받을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8일 형사보상법의 해석을둘러싸고 재판부마다 견해가달라 형사보상금이 제멋대로결정되던것을 시정하기위해「형사보상법 부칙제2항 (보상청구의원인)은 무죄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한다」는 예규를제정, 전국각급법원에 시달했다.

억울한 옥살이에대한 피해보상을 규정한 형사보상법은 지난81년 12월17일 제정되면서 보상액기준을 구금일수에따라 1일 8백원~1천2백원에서 5천원~8천원으로 인상하고 그부칙에 개정된법률시행전에 「보상청구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경과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기준시점에대한 견해가 재판부마다달라 「보상청구원인」의 시점을무죄확정판결때로보느냐, 부당한구금을당한시기로 보느냐로 엇갈려 말썽이생겼으며 따라서 피해보상액이재판부에 따라 큰차이를 보였었다.

대법원의 이번 통일된해석의 취지는 『구금은 법개정이전에 있었다해도 무죄확정판결이 법개정이후에 있었다면 인상된 기준으로 보상금을결정해야한다』는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법률해석을 한것이다.

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나 재심비상상고에 의해 무죄판결을받은자가 미결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때는 부당한구금에대한 피해보상을 국가에 청구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에 1년 이내에 할수있기때문에 그결정에대해 불복할수없도록 규정되어있어 대법원판례가 있을수없는 실정이나 이번대법원의 법률해석은 서울형사지법의 질의에 따라 이루어지는형식을 취했다.

蘇, 美 비밀武器 密搬出실패

財務省요원들 감시에 걸려

【워싱턴AP 特電=聯合】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7일 소련이 첩보기와 정찰위성에 쓰이는 1급비밀장비인 무선주파수 走査機를 미국에서 훔쳐내려했으나 美비밀 요원들에 의해 좌절됐다고 밝혔다.

와인버거 장관은 이날미국수출지원연맹에서 연설하기위해 준비한 연설문을 통해 蘇聯이 영공감시와 위성정찰에 필수적인 다변스펙트럼주사기를 몰래 빼돌리려했으나 주사기제조회사 비행기에 실려 외국으로 밀반출되는도중 발각돼 수포로 돌아갔다고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소련의 美비밀장비 밀반출기도사건에대해 더이상 구체적인언급을하지 않았으나 국방성관리들은재무성소속 비밀요원들이 캘리포니아州 애너하임에있는 한회사에서 만들어진 이주사기를 회사비행기를 이용, 해외로 밀반출하려는 소련의 기도를 미리 포착, 비행기에실려있는 주사기와 도래주머니를 재빨리 바꿔치기 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관리들은 이사건이 금년초에 발생했으며 재무성요원들은 『엑소더스작전』을 통해 주사기 밀반출기도를 분쇄했다고 밝혔다.

中共, 내년 具體化

【홍콩 特電=聯合】 중공의 고위관리들은 홍콩뿐 아니라 현재 포르투갈령으로 돼있는마카오도 중공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기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이 계획은 내년봄이나 늦어도 내년여름까지는 공식발표될것이라고 홍콩의 좌익계 잡지인 미러(鏡)보가 7일보도했다.

메아리

말 꼬리

글을 쓰다 法典을 뒤지는 일이 종종있다. 그럴때 찾아 보는 憲法조문은 이따금저추상스럽게 여겨진다. 많은 경우에 新·舊憲法을 대조해 봐야 現行조문의뜻이 제대로 읽기 때문이다.

손가까이 두고 보는 法典도 새 憲法과 舊憲法을 함께 싣고, 新·舊憲法의 대소, 憲法개정의 연혁등을 표로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8차례 改憲의 내력이 일목요연하여 편하지만, 憲法史를 돌이켜 보는 감회가 일기도 한다.

오늘 法典을 펴든 것은, 엊그제 국회에서 듣어 나온 地方自治 구성을 찾아보다.

지금 憲法은 地方自治에관한 2개條를 포함하고 있다. 舊新憲法규정도 똑같다. 다른것은 附則 제10조 뿐이다.

舊新憲法의 附則제10조는 이렇다.

『이 憲法에 의한 地方議會는 祖國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新憲法, 地方自治를 않는다는 얘기다.

같은 조문이 新憲法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 憲法에 의한 地方議會는 地方自治단체의 財政自立度를 감안하여 順次的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마찬가지 條件附이기는 하나, 地方自治실현의 현실성이 더해진셈이다.

국회에서의 地方自治 말썽은 이 새憲法조문에서 비롯된다. 국무총리 답변중 『地方財政의 自立度가 일정수준에 이른뒤에 地方自治를 일괄시행 한다』는 발언의 後段이 憲法의 「順次的」이란 명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은 것이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그 부분의 「표현 잘못」을 정정·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地方自治논란이 憲法시비와 그에 대한 해명으로 끝난다면 아무래도 바흡한 저각다. 본질을 떠난 낱꼬리 잡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실, 국무총리가 만한 財政自立度의 「일정수준」을 높이 잡는다면, 그의말은 地方自治를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진다. 憲法의 「順次的」이란 말도, 財政自立度가 높은 단체, 예컨대 서울부터 議會를 구성한다는 해석은 물론, 먼저 市道단위議會부터, 아니면 面단위議會부터 단계적으로 구성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라면, 市道議會를 전국일제히 구성하는 따위를 「일괄시행」이라 못할 것이 없다.

문제는 총리가 지적한대로, 겨우 60·5%에 그친 地方財政의 自立度다. 자체세입으로는 인건비도 대지 못하는 단체가 51·3%, 자체세입이 인건비+경상비에 못미치는 단체가 89%에 이르는 판국에 地方自治란 있을수가 없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지금의 현실은 정부의 財政정책이 빚어낸 것이면, 지금대로의 財政정책을 그냥 밀고 나가는데 地方財政은 더욱 위축될수 밖에 없다는데 있음을 생각한다.

地方 財政의 自立度란, 결국 財政정책을 정하기에 달린 것이다. 憲法附則의 「條件」도 政策意志로 귀착되고 만다.

한가지 예로, 지금 地方財政의 큰몫은 地方交付稅이다. 법에 정한 그 交付率(內國稅에대한 比重)은 본디 17.6%이던 것이 72년 8·3조치로 폐지되고, 8·3조치가 폐지된 후해에는 12.88%, 83년 13·27%로 묶여있다. 그러니 地方財政이 여윌 수 밖에없다.

뿐 아니라, 지금稅制는 稅源거의다를 중앙정부가 차지하도록 되어있다. 그것을 다시 배분하여 地方稅몫을 늘리지않는한, 아무리 地方稅課標를 올려봐야 財政自立에는 별도움이 안된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전국 13개市道의 빚은 9천4백억원 (3월말 현재)에 이르고있다. 그야말로 危機的 狀況이다.

만일 정부가 地方自治를 시행할 생각이있다면, 마땅히 憲法附則의 조건을 채울수있도록, 地方財政정책을 재정립하고, 地方財政의 危機를 극복해야한다. 몇해 뒤를 기약하더라도, 그에대한 財政마련은 벌써부터 있어야 한다.

지난 2월 民正黨의 李載澄대표위원이 88년이전에 地方自治를 실시할 수있도록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한 釜山발언보도 (본보 2월19일字)를, 나는 그런 맥락에서 읽었다. 88時限을 대통령 임기와 관련시켜 말한 것이지만, 地方自治는 올림픽에 대비하여서도 중요하다. 올림픽을 주최하는 서울에 議會조차 없더라―이런 말이들릴때의 면구스러움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時限을 그을 수밖에없는 地方自治라면, 그에 대한 국회논의가 굳이 「政治議案」일것은 없다. 지금쯤 地方交付稅率을 20%쯤까지 年次的으로 인상하는 法律案, 일부國稅의 地方稅이양을 규정한 稅法改正案이 국회에 제출돼 있음직도 한것이다.

야당이 이런 측면을 따지지 않는 까닭은 알수가 없다. 국무총리의 답변도 그런데 언급이 있었다면, 싶다. 아직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솔직하게 그렇다고 시인하고, 앞으로의 포부를 말하는것이 그 다웠을 터이다. 그랬으면 말꼬리가 생길 까닭도 없다.

법은, 제정·공포된 그 즉시부터, 自行止하는 속성을 지녔다. 입법 때의 명색이나 속셈을떠나, 그 文面만으로행세하는것이다. 새憲法 附則제10조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의 피치못할 과제가 된다. 地方自治의 與件미비를 말하려면 與件造成의 노력도 함께 보여주어야 구색이 맞는다.

金昌悅 <編輯委員>

一般職·技術職공무원

停年 단계적延長

정부는 高級기술人力需要의 증가와 평균壽命의 신장에따라 一般職과 技術職공무원의 停年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8일 정부가발간한 行政白書에의하면 현재 기술직공무원만 3년연장이 가능토록돼 있는것을 일반직 공무원에까지 확대, 5급이상 61세, 6급이하 55세로돼있는 정년을 職級에따라 탄력적으로 上向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따라 정부는 평균수명에따른 외국의 停年制와 우리의 停年制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정년제적용이 곤란한 別定職과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연령上限制를 도입할것을 검토하고있다.

정부는 이같은 근무年齡上限制의 도입으로 무능력자에대한 자연도태를 유도하고조직의 인사침체를 방지하는효과를 얻을수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정부는 또 年3천명에 달하는 停年퇴직공무원중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후에도 경험을 살려 봉사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NP 北韓의 4배

1人當 국민생산은 千5백6달러

80년현재 南北韓의 국민총생산은 한국이 5백76억달러인데비해 北韓은 1백35억달러로 4·3배나 많고 1인당 국민생산은 1천5백6달러 對7백58달러로 우리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8일 국토통일원이 발간한 南北대화白書에의해 밝혀졌다.

南北韓간의 주요경제指標를 보면 총貿易量에 있어선 우리가 3백97억8천만달러인데 비해 北韓은 31억7천만달러로 12·5배가 많고 인구증가율은 北韓이 2·49%인데 비해 우리는 1·57%이며 군사비부담률은 北韓이 25·1%, 우리가 6·45%로 나타났다.

1인당 총소비에있어선 우리가 1천24달러인데비해 北韓은 3백26달러에 불과해 우리가 3·14배나 높은 것으로 비교했다.

주요산업생산지표의 경우 자동차생산에서 우리가 35만대로 北韓의 3만대에 비해 11·7배에 달하고 造船능력은 우리가 2백80만톤인데비해 北韓은 25만톤에 불과하며 최대船舶建造能力도 26만톤對2만톤으로 우리가 13배나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李외무, 어제歸國

李範錫외무장관은 15일간에걸쳐 뉴욕과 영국방문을마치고 8일하오 KAL편으로 귀국했다.

李장관은 이날 金浦공항에서『레이건美대통령의 訪韓의지는 확실하다』는것을 확인했다』면서 『국가원수가 움직이려면 상당시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밝힐수는 없지만 내년중에 레이건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는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社會漫評

「人文」은 매우 중요한 것이니라…

地平線

미국은 記錄을 매우 重히 여기는 나라다. 역사로서 남을 문헌이 소중히 보관되는것은 말할것없고, 政治人을 비롯한 公人의 말도 어떤방법으로든 기록된다. 政治人의 발언이 미국만큼 정확히 그대로 인쇄되는 나라는 그리 흔치않을 것이다. 미국신문이 인용구를 써서 政治人의 발언을 보도할때는 그사람이 말한것을 한자도 가감하지않는다. ▼미국신문들의 기사에는 그런 인용구가 많이 눈에띈다. 그 인용구는 결코 강조하기위해 사용되는것이아니다. 말을 정확하게 옮긴다는 뜻이며 표시다. 대통령, 장관 또는 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은 으레 녹음기를 휴대한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다. 미국사회가 정확한 기록을 重視함에 따라 재빠른 商魂도 뒤따라 나선다. 대통령기자회견의 문답내용은 30분이 지나면 거의 한자도 틀리지않고 그대로 프린트 되어 비싸게 팔리는 것이다. 白堊館서 공식으로 나오는 문답내용사본(TRANSCRIPT)은 서너시간 지나서야 기자들에 공개된다. ▼『人權과 自由에 대한 강조는 바로 開放된 社會·政治體制와 閉鎖된 社會·政治體制를 갈라놓는 세계의 大地殷斷層線 건너편의 共產帝舍體制와 우리를 구별해주는것입니다』고 엄마전 워커주한미大使는 어느 한 연설에서 말했다. 모르긴 하지만 워커大使의 眞意는 모든사회가 장래에도 閉鎖的이 되지않고 開放된 사회로 발전되기를 원한데 있는것같다.▼ 미국사람들은 開放·公開性을 좋아한다. 미국과 세계에 알려진 政治人 으로서 在任중의 일들을 기록·공개하지 않는 政治人이 얼른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키신저회고록, 닉슨, 카터회고록이 하나같이 미국과 세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공개되는것은 반드시 위대한 업적이나 좋은 내용만이 아니다. 어마 어마한 정치 범죄라 할 워터게이트사건 마저 간여했던 사람들이 그들 視角에서본 기록을 책으로 내놓았다. 닉슨의 白堊館참모였던 홀드만, 엘리히만의 저서들이 그런것들 이다. ▼그들기록은 대체로 솔직성을띠는것이 또한 미국저특색인듯하다. 白堊館시절을 회고하는 카터의 타임誌회견은 부척 흥미를 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여러측면에서 그는 좋아질수있는人物이나 그가 대통령이 될자질을 갖추었다고는 생각지않는다…』고 케네디 상원의원을 평했다. 카터는 앞으로의 불러일으킨 그의 對蘇核軍縮정책과 人權을 민주당이 그대로 밀고가면 黨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파의 기록하고 그것을 공개하는것이 民主主義가 발전해나가는 한 요소라고 할수있지 않을까.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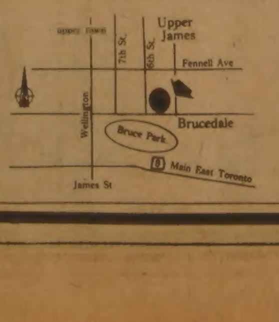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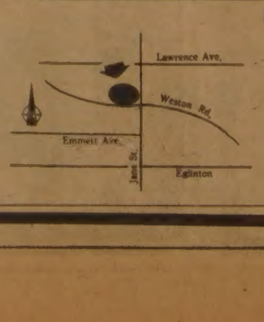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해밀톤에 한인식품점이 생깁니다!

교포여러분, 특히 HAMILTON거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는10월 15일에 **해밀톤 서울식품** 을 OPEN 하게 되었읍니다.
성심성의껏 **저렴한 가격** 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와 편달있 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밀톤·서울식품이 OPEN될때까지 **서부 서울식품(☎ : 243-9544)**
에서 **전화 주문시 배달** 하겠사오니, 아무리 적은 주문이라도 서슴치 마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인조 올림



해밀톤·서울식품
128 BRUCEDALE AVE. E.
☎ : 1－385－1485



서부·서울식품
1391 WESTON RD.
(로렌스×웨스톤)
☎ : 243－9544

中·蘇회담 順航중

——예상외의 急進展… 그 속사정

「緊張해소」필요 서로 절감
亞洲大陸정세變化올지도

國際焦點

…금 공식회담은 예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결과가주목되고있다. 당초「양국관계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기도했던 이번 회담은 7일부터 양국국경에 관해 집중적인 토의에 들어감으로써 「분위기 타진」이 아닌 「실질적이며 실속있는 회담」이라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中·蘇간의 관계개선, 더 나아가 中·蘇·베트남간의 화해로 발전될 가능성까지 점칠수 있다.

또한 이런 현상은 시베리아에서 南支那海에 이르는 아시아대륙의 정세변화뿐아니라 중공지도자들이 취해나갈 외교노선의 변화를엿볼수있게한다.

관측통들은 중공이 미국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청산하고 美·蘇에대한 등거리외교정책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시작한 첫번째의 커다란 변화라고 분석하고있다.

즉 이번 회담과같은 현상은 하나의제스처가 아니며 미국으로부터 보다많은 양보를얻어내기위해 미국에대해「소련카드」를 사용해보자는 단순한 카드놀이가 아니라고 지적하고있다.

중공이 미국과 소원해지기시작한것은 지난 연말레이건행정부가 대만에 무기판매를 결정한데서 …

…중공은 미국과의 유착으로 감소된 제3세계국가들의 자국에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도자로서의 야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싶어하고있는것같다.

회담이 진행중이던 6일 중공수상 趙紫陽은 한 만…

…에 대한 집착에서 신좌성을 보이고있다. 對중동정책에 있어서 중공이 미국과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점도 중공과 미국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있다.

미국이 親이스라엘인데 …게된데있다.

현재 중공의 최고실권자 鄧小平을 중심으로한 실용주의자들은 문화혁명을 주도한 毛澤東 추종세력과는 달리 이념과 정책면에서 탄력성을 보이고있다.

실용주의자들로 구성된 중국지도층은 소련의 브레즈네프서기장을 중심으로한「수정주의자들」간에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장벽이 없으며 중공지도자들은 실용주의란 일종의 수정주의노선」을 답습하는 …

◇中·蘇국경지역에서 훈련하는 소련군。현재 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中·蘇국경회담은20년에 걸친 양국간의 불화를 씻어내고 관계정상화를 향한 계기가 될 가능성도 높다。

조치로 베트남에게 對중공화해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압력을 가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시작된것과 때를 같이해서 소련은 베트남의 트루옹·친 국가평의회의장을 초청했다. 관측통들은 이같은 움직임이 베트남에 대한 對중공화해종용 내지 압력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문제는 79년말 소련군의 주둔을 중공은 침공으로 규정하고 …

국이 이해하고 우선 협상이 가능한 국경문제부터 거론키로 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토의의 주제가 되어있는 국경분쟁은 과거 제정러시아때 맺어진 조약을 중공은 조약자체가 불평등조약이었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제반상황이 특별히 변한 것이 없는데도 중공이 협상에 임하게 된 것은 국경긴장이 갈수록고있는 滿洲지방에 대한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공은 滿洲에 산업기지를 건설하려는 야심적인계획을 세우고있으나 소련군이 이 지역을 침공할 경우 이 곳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현대화계획의 밑바탕이 흔들리게된다.

이런 사정이 중공의 처지를 다소 약하게 만드는 하나의 환경이돼 있다. 과거 毛澤東도『中·蘇국경은 비록 역사상으로 다소 불평등한 점이 있지만 국경을 존중하고 현국경이 상호영원히 우호적인국경이 될수도있다』고말한바도있다.

못했다.

중공은 20세기말까지 완료하기로계획하고있는4개현대화를 추진하기위해 미국과 서방으로부터의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자국의기대에 못미친데 실망하고있으며 자신의국경을 압박하고있는 소련의 위협을 줄여야할 필요성도 절실

찬석상에서 美·蘇의 패권주의에 대항하기위해 제3세계가 단결해야하며 중공은 쿠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국가들과친밀한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은 또 소련의 아프리카 활동거점인 앙골라를 승인함으로써 소련의 맹방

반해 중공은 아랍국가들을 두둔하고 있으며 중공의對중동정책은 전체적으로 소련에 가깝다.

중공이 소련에의 접근으로 정책을 변경하게 된 또하나의 요인은 中共黨12期 全黨대회에서 문화혁명의 잔재를청산, 소련과의 이념적마찰의 소지를 배제하

것으로도 분석될수 있다.

지금까지 中·蘇관계를가로막았던 것으로 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 소련의 베트남지원,소련군의 중·蘇국경집중배치등이 지적돼왔다.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먼저 제안했던 소련은 이같은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中·蘇국경회담중단, 올림픽참가거부등의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으나 당초보다 근래 중공의 태도는 많이 누그러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이 신속하게 진행된것은 베트남문제, 아프가니스탄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양

이번 국경회담은 회담에 임하는 소련측의 태도에 따라 어쩌면 관계정상화에로의 커다란 접근이 될 가능성이 있다. 【朴來富기자】

美、레바논外軍 철수案마련

WP紙보도
현小康상태 活用케

【워싱턴AP 聯=本社】미국은 레바논에 주둔중인 이스라엘 및 시리아군과 팔레스타인게릴라의 단계적 철수계획표를 앞으로 10일안에 작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7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이날 이름이 밝혀지지않은 한관리의 말을 인용, 레이건미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이 이 철수계획을 받아 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기위해「다소 단호하고 신속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립·하비브 미중동특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행정부고위관리들과 레바논주둔 모든 외국군의 단계적 철수계획을 논의했다.

美행정부의 한고위관리는 하비브특사의 목표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레바논에서 외국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미국이 평온을 유지하고있는 레바논의 현상황을 이용, 새로운 폭력사태가 발생하기전에 적대세력들을 철수시키기를원하고있다.

自由勞組 해체임박
波、指導者검거선풍

【바르샤바AP 聯=本社】폴란드당국은 금주말로 예정된 勞組법안의 의회통과와 함께 격렬한 반정부시위가 벌어질것에 대비, 지하자유노조지도자들을 대거 검거하고 자유노조해체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공세를 시작했다고 지하자유노조 소식통들이 7일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비밀지하주간지『티고드니크·솔리다르노스크』(주간 自由勞組)에 관여하고 있는협의자들과 과거 반정부시위에 가담했던인물들이 바르샤바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호르스灣 봉쇄 兵力증강 배치

스웨덴 當局

【스톡홀름AP UPI=聯】스웨덴해군은 무스코해군기지부근해저에 숨어있는 국적불명의 괴잠수함이 탈출하는것을 막기위해 7일 4개의 폭설(총1백kg)를 추가로 투하하는한편 정예특공부대와대공포부대를 호르스灣근처의 도서에 새로 배치했다.

관리들은 수척의 스웨덴해군함정과 1척의 잠수함이 북발트해로 열려있는 호르스만입구를봉쇄중이고잠수함구조함 벨로스號도 이해역으로이동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들은 또 2대의 CH46헬리콥터가 이해역에 파견됐으며 특수하게 만들어진 철망이 호르스만의 봉쇄에부분적으로 사용됐다고전했다.

海外토픽

◇움직이는 郵遞局 프랑스체신부가 콩코르드廣場에 선보인 움직이는 우체국。편지·전보는 물론 텔렉스와 전화까지 프랑스 전역에 연결되는 최신 시스팀을 갖추고있다고。【키스톤=聯】

틸레놀藥禍 세계로波及
製造·판매禁止國 6國 擴散

미국에서 발단된 해열진통제인 틸레놀의 약화사건은 이 캡슐 약의 제조및 판매를 금지시키는 나라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세계적으로 파급되고있다. 7일까지 이 약의 제조및 판매를 금지시킨 나라는 미국을 비롯, 필리핀, 캐나다 파나마 과테말라 이스라엘등 6개국에이르고있다。

이 약품의 제조회사인 존슨·엔드·존슨社는 필리핀과 캐나다등 각국에 산재해 있는 현지子會社를 통해 이약품의 판매중단을 요구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외의 다른국가들에서는 이약의 복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아직없다. 【시카고=聯】

돌발뉴스 잘안믿어
★美기자주장、일단의문품어

미국의 중진언론인 3명은 6일 대중은 자신들이 읽거나 듣는 돌발사태에 관한 뉴스에 일단 회의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왓슨 ABC부사장과 H·L·스티븐슨 UPI편집국장및 세이무어·토핑 뉴욕·타임즈紙 주필은 이날 故안와르·사다트 이집트대통령의 1주기를 맞아 뉴스의 정확과 신속문제를 취급한 ABC의「굿모닝·아메리카」프로에서 돌발사태를 알리는 소식통들이 항상 정확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같은 견해를 표명했다.

왓슨부사장은 신문독자나 방송 청취자들 편에서 볼때 뉴스에 대한 회의가 많다는 것은 건전한 일이라고 말했다. 【뉴욕=UPI】

★올 美서 옷잘입는 男性
레이건 1位로뽑아

미국 남성의류조합은 7일 금년도 美國에서 가장 옷잘입는 남자10명을 뽑으면서 레이건대통령을 최상위자로 선정했다.

프레드·마제이 조합회장은 레이건대통령을 비롯한 멋장이남성10명은 스포츠복에서 정장과 잠옷에 이르기까지 흠잡을데 없는 세련미를 갖췄다고 심사기준을 설명.

레이건대통령 이외에 10명의 멋장이 명단에 낀 낯익은 얼굴로는 배우 로버트·와그너와 조지·해밀턴, 크라이슬러자동차회사의 리·아이오코카회장및 뉴욕·필하모닉의지휘자 주빈·메타등이있다. 【시카고=聯】

光復大陸 꿈키우는 臺灣

辛亥혁명 71주년맞는 오늘의 상황

中共의 統一壓力속 中進國대열 進入
1人當 GNP 2천4백弗、기술立國

10일로 辛亥혁명 71주를 맞는 자유중국은 최근 鄧小平체제를 확립한 대륙의 정치적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處變自强」의 의지속에 의연한 모습을 지키고 있다.

닉슨의 중공방문이후 10년동안 자유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그 정치적 위치가 급격히 格下돼 왔다. 자유중국의 가장 믿음직한 우방이던 미국과 일본이 앞을 다투어 대륙과 국교를 텄고, 유엔安保理상임이사국의 자리도 중공에게 빼앗겼다.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나 공식적인 모임에서도 설움을 당해야 했다.

지난 9월초 中共黨12期 全黨대회에서 實用주의노선전환을 분명히 한 중공은 향상된 국제지위를 배경으로 자유중국에 대한통일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요즘 北京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국과 중공간의 홍콩협상이나 마카오문제에 관련 중공당국의 거듭된 주권주장도 모두가 臺灣에 귀결된다.

중공이 주장하는 통일방식은 자유중국의 現행정체제를 그대로 두고 主權은 北京정권에 귀속시키는 自治州형태의 통합이다. 사실 …인 추진을 위해서도 홍콩、마카오같은 자유로운 對外무역창구와、개발도상국가운데 선진그룹에 올라선자유중국의 중진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이 중공안에 귀속되더라도 각각고유의 개방체제가 가능한 유지되도록 허용할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중국혁명과정의 中·日전쟁을 치르는 동안 수차례의 國共合作이 번번히 공산당의 배반으로 끝났고 결국 대륙에서 밀려나야했던 자유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중공측의 통일방식을 밑바닥부터 믿지않고 있으며, 실제로 통일후 自治체제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중앙정권의 정치적간섭은 피할수 없을것으로보고있다.

자유중국은 辛亥혁명과 孫文이 세운 중화민국의 정통이 臺灣정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어쩔수없었던 시세에 밀려잠시 臺灣에천도한 것일뿐 언젠가는「光復大陸」의날이 올것을 믿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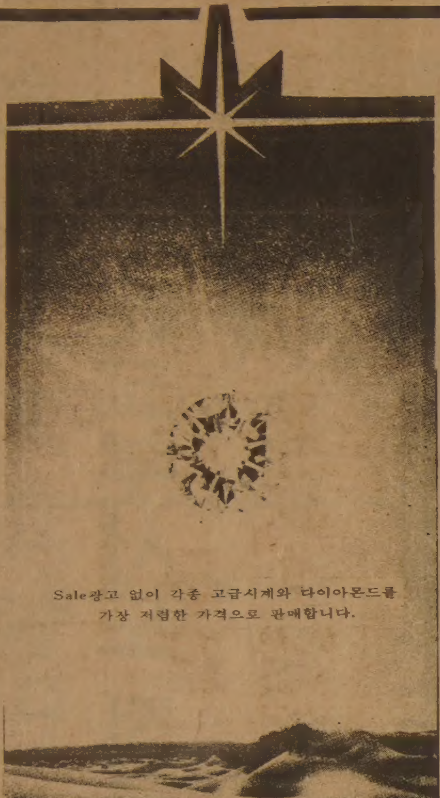
臺灣으로 옮긴후 30여년동안 자유중국정부는 8억을 통치하던 행정능력을 바탕으로 1인당GNP 2천4백달러에 이르는 오늘의 풍요를 이루어 놓았다.

지난 30년간 평균경제성장률 9%, 두차례의 오일·쇼크가 덮쳤던 74~81년간의 성장률 7.8%, 81년도 무역고 4백38억달러.

이런 성장경제와 현대장비를 갖춘 40만의군대를 바탕으로 자유중국사회는 평균수명이 남자69세, 여자74세라는 수치가 나타내는것처럼 안정된모습을 보여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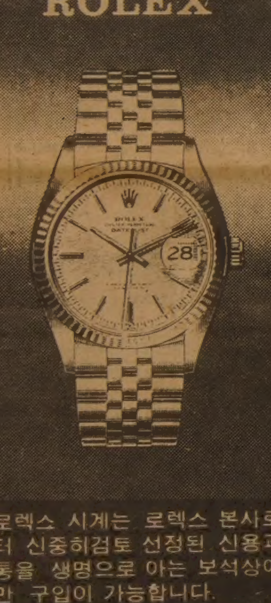
중공이 추진하고있는 4…현대화정책도 그모델이 바로 오늘의臺灣이라고 자유중국인들은 자부하고 있다. 【朴贊式기자】

LANCÔME PARIS
랑콤화장품 보너스세일
랑콤 가을보너스가 도착 했읍니다.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Sale광고 없이 각종 고급시계와 다이아몬드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ROLEX



로렉스 시계는 로렉스 본사로부터 신중히검토 선정된 신용과 전통을 생명으로 아는 보석상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은 하 보 석
전화 : 534-9977, 534-7791
주소 : 620 Bloor St. W.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보광한약방
확장이전개업안내
교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인 불루아상가(외환은행 불루어 지점2층)에 업소를 확장이전 개업하오니, 배전의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어느상담이든지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10월9일
송계 김남집 배
⊙임상경력 30여년 경험으로 최대 봉사.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주소 : 627 Bloor st. W. #202 (외환은행 불루어지점 2층)
☎ (B)588-1984 (R)439-6717 송계 김남집

트로피
골프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 패
메 달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캐다록에서 50% OFF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한글사랑 부족하다

맞춤법등 4대 기본원칙조차 통일안 마련못해

학계 자기학설만 내세워 문교부서도 적극 정책안펴

오늘 536돌 한글날

오늘은 5백36돌 한글날。 나라말을 아끼고 사랑하는마음을 다짐하는 날이다。 그러나 일본말의 찌꺼기가 아직도 일상생활속에 남아있는등 자기나라말을 지키고 가꾸는 정성이 부족한것이 유난하게 느껴지는 날이기도 하다.

더구나 숙래의 과제인 한글맞춤법, 표준말, 외래어 표기, 로마자표기등 국어의 4대기본원칙이 아직까지도 통일이 되지못한 아쉬움 속에서 산다。 사회변천에따라 언어 생활과습관이 바뀌는데도 시대에맞는 통일안을 마련하지 못하는것은 문화발전에저해요인이 될뿐아니라 주체의식의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볼수도있어 더욱 안타깝다.

이에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어문정책을 맡고있는 문교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않고있고 ▲통일시안작업을 위탁받은 학술원등 학계 다 전문가들이 필요이상으로 자신의 학설이나 의견을고집 서로 의견이 엇갈려 효과적인 작업을하지못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교부는 지난5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서울개최결정과 관련, 이 4개기본원칙 중 외래어표기와 로마자표기가 가장시급한것으로 판단, 우선적으로①지난9월까지통일시안을 만들고②공청회등을통해 이안을 금년내에 확정짓거로 하는등 구체적인일정을 짰다 이것마저도 아무런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교부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외래어 및 로마자표기는 내년중에도 통일안을 확정짓기가 어렵다고 전망하고 따라서 한글맞춤법과 표준말의 통일안은 그 확정시기가 언제가 될지마저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일안이 확정되지 않고있는 대표적사례중의 하나가 지난6월부터 로마자표기에 관한 통일안작업이었는데 이를진행중이던 문교부관계자는①正字방식표기②표음주의식표기③혼용방식표기를 놓고 학자마다 의견이 틀려 통일안시안작업은 원점에서 한걸음의 진전도없이 큰애로를 겪고있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지난 78년12월 당시 정부고위층의 특별지시로 전국어이후 처음으로 4대기본원칙에 관한 통일시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한편 이를해인 79년말까지 확정짓고80년초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0·26사태가 일어나자 문교부의 이같은 「4대어문정책」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은어문정책은 학생들의 교과서에서부터 국민의 정신문화등 생활전반에 치대한 영향을미치는것이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가장시급히 해결되어야할 과제』라고 지적하고『정부가 어문정책에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표준말은 지난36년10월,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33년10월등 일제치하에서 제정된 것이며, 외래어표기법은 해방이후인 58년, 로마자표기는 59년에 각각 제정된이래 한번도 개정된일이 없다. 【李鍾九기자】

亡身귀국

◇미스서울 납치소동을 벌였던 韓昇熙씨가 곤혹스런 표정으로 수갑을찬채 서울지검으로 압송됐다。 KAL편으로 미국에서 추방된 韓씨는 이날밤 공항에서도 증발소동을빚었으나 알고보니 보도진을피하기위해검찰수사관들이 1시간30분이나 기장실에 따돌렸던 숨바꼭질이었다。

서울拘置所수감

「납치소동」 韓昇熙씨

미스서울 李前政양 (27·일명 淳福) 납치소동의 장본인으로 미국에서 추방된 韓昇熙씨 (27) 가 7일밤 11시40분께 귀국직후 서울지검공안부 李鍾燦검사에 의해 간단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후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검찰은 이날상오 이미경찰에서 송치된 이사건관련피의자 李徹씨 (52) 등 5명의진술을 토대로 범인으로 부터韓씨에대해 공문서변조및 동행사、여권법및 미합중국법위반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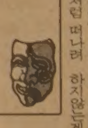
韓씨는 이날 예정시간 보다 30분늦게 金浦에도착, 미리대기해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기내에들어가 韓씨의신병을 인수, 보도진의 눈길을 피해기장실로 따돌려 놓았다가 하오9시10분께 주위가조용해진 틈을타 서울2마5716호 검은색 승용차편으로 서울지검으로 연행했었다.

어느 仁術

李得賢씨 뒷바라지해온 日人의사

"조그만 人間 사랑일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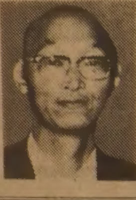
지난5일 48년만에 모국을 찾은 재일동포 李得賢씨 (69) 주위에는 항상 山尾昭三씨 (38·사진) 란 일본인 의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거동이 불편한 李씨를 부축하기도 하고 수시로 혈압을 재곤한다.



머리가 벗겨지고 몸매가 호리호리해 나이보다 10여년쯤 더 늙어보이는 山尾씨는 일본宮城縣 鹽釜市에 있는 鹽釜坂總病院의 원장직무 대리로 신경병전문의。 일본에서도 성공한 의사측에 드는 그가 李씨의 주위를 좀처럼 떠나려 하지 않는게 이상해 보일정도였다.

감도살인죄란 누명을 쓰고 2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李得賢씨는 현재 신장병에 뇌졸중, 동맥경화등 합병증으로 고생하고있다. 지금은 부축을하면 어느정도 움직일수있지만 1년전 처음 山尾씨의 병원을 찾았을 때만해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야만 했다。

山尾씨는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있던 李씨를 처음 본순간 『얼마나 고문을 받고, 억울했으면 몸이 이처럼 됐을까。 나라도 도와주어야겠다』고 혼자 다짐했다. 그때부터 거의 치료비도 받지않고 온갖 정성을 다했다. 山内光耶씨가 이끄는李씨후원회에도 가입했다.



그의 정성이 통했는지는 몰라도 李씨의 병세는 차도를보여 부축하면 움직일수 있게됐다。 李씨는 몸이 나아지자 모국방문을 이야기했고 이번 추석에는 성묘를 해야겠다고 고집부렸다.

山尾씨와 李씨후원회원들은 정말 난감했다。 한국이 아무리 가깝다지만 李씨의 건강상태로는 장기여행이무리였다. 후원회에서는李씨의 모국에대한 집념을 꺾을수 없어 3명을 딸려보내기로 했고 山尾씨는 3명이 따라간다 해도 48년만의 모국방문에 李씨가 흥분하지 않을까 걱정이돼 자신도 병원일을 때려치우고 자비로 따라나섰다.

다행히 李씨는 48년만의모국방문을 차분하게 소화 했고, 모국방문의 기쁨 때문인지 건강도 좋았다。

『저의 조그마한 인간사랑을 색안경을 쓰지않고 바꾸었으면 합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이해하면 국가간의 문제도 큰장벽이 없으리라 봅니다』山尾씨의 초청엔 요즘한일관계때문인지 그의 인간애가 오해받진 않을까하는 염려가 짙들어 있었다。 【崔成基 기자】

돼지 2천4백마리 떼죽음

金海지방 의사豚콜레라 크게 번져

【金海】 金海지방에 의사돼지콜레라가 집단으로 발생, 2천4백여마리의 돼지가 떼죽음을 당했다.

8일 대한양돈협회 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9월하순부터 金海지방에 돼지에 치명적인 의사돼지콜레라가발생, 이날현재 관내 1백14가구에서 사육하는 4만1천여마리의 돼지중 金海郡酒村面元支里 정원상씨 (56)의 돼지4백마리등 2천4백여마리가 폐사했다는것.

金海지방에 번지고 있는 의사 돼지 콜레라는 주로 생후 2~3개월되는 어린돼지에 발병하고있는데 사육농가들은 어린돼지에 콜레라의예방접종을 했으나 백신의 약효가 낮아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당국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聯】

釜山서도 택시운전사月給制

月15일근무 28만1천원支給

【釜山】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영업용 택시운전사들의 월급제가 실시된다.

부산시택시운수사업조합은 8일 부산시내 1백51개택시 업체대표들과 만나 택시운전사들의 급료를 월15일근무에 기본급 6만5천원과 심야수당등을 포함, 월28만1천2백45원을 지급키로 결정, 월급제를 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한편 운전사들의 하루 사납금도 정부가정한 6만8천원보다 다소 낮춰 최저 6만5천원에서 최고 6만8천원으로 정했다. 【聯】

가네시이브峰 첫 登頂

7千1百2m 釜山 히말라야원정대

【카트만두(네팔)AP聯合】 한국의 釜山히말라야 원정대 소속이상렬씨 (29)가 지난 5일 히말라야 산맥의 해발 7천1백2m의 가네시이브峰 (일명파빌峰) 등정에 성공함으로써 이峰의 최초의정복자가 되었다고 네팔 관광성이 8일 발표했다.

가네시이브峰은 네팔 중서부에 위치하고있으며 정복한 시간은 하오 2시30분이라고 관광성은 발표했다.

眞露파동계기 酒精자율규제

國稅廳 지도강화

국세청은 眞露와 지방소주업체간의 시장점유율분쟁을 타개하기위해 소주업체들에 대해 주정의 올해 배정량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하는등 소주업계에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했다.

8일 국세청에따르면 전국의 소주업체들은 국세청의이같은 행정지도에따라 지난9월중순부터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15% 증가책정된 올해 주정배정량 80만5천드럼의 8·57%인 6만9천드럼을 자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주류공업협회를 중심으로한 소주업체들은 自道內 50%판매실적유지, 올해소주판매실적, 시장점유율등을감안하여 업체별로 주정배정량을 줄였으며 眞露는 전체축소 조정물량의 14·49%인 1만드럼을 줄이기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眞露의 독과점횡포로 지방소주업계가 도산위기에 몰려있다는 주장에따라 眞露측의 소주출고량을 지방에 과다배정하지말고 서울과 京畿지방에 다량배정토록 행정지도하기로했다.

국세청은 眞露의 독과점횡포가 발견될때는 즉각행정조치, 주류업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고 소비자보호에주력하겠으며 2일안으로 소주부에서번 利益金을 위스키분야의 광고선전비나 결손보전금으로 충당치 못하도록하기위해 연말까지 소주와위스키분야를 분리, 별도법인을 설립토록하는 각서를 받아놓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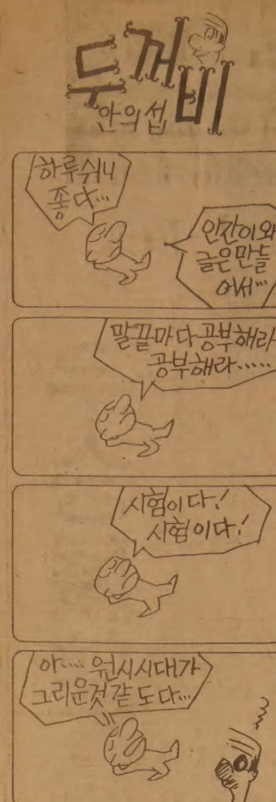
운전경력 위조 個人택시 免許

부산에이어 서울에서도 개인택시 운전사의경력 위조사실이밝혀져 경찰이 일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시경은8일 1차로 11개회사의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사업면허를받은 43명을조사한결과 李慶來씨 (35·미국이민) 가 허위서류로 면허를 받은 사실을밝혀내고 李씨에게 가짜서류를만들어준 서울택시조합 道峰지구직원 吳鍾動씨 (32·서울西大門區弘濟洞38) 를 공무서변조·동행사혐의로 입건했다.

吳씨는 지난6월초 서울·에 각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들의 운전경력조회서를 보내면서 李씨가 서울道峰區倉洞608의167 英進흥운에 근무한적이 없는데도 지난72년부터 7년동안 근무한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李씨는 이 가짜경력증명서로 지난8월18일자로 서울시로부터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얻은뒤 이를 1천만원이상의 프리미엄을붙여 팔고 지난8월31일 미국으로 이민간것으로 밝혀졌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외국어高校 생긴다

중학교英語성적"優"이상 入試자격

大元高校 인가방침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일어등 5개외국어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게될 외국어고교가 국내최초로 서울에신설된다.

8일 서울시교위는 학교법인 大元학원의 외국어고교설립신청을받아 자체심의를거쳐 문교부에 승인요청을했으며 문교부도 이를 승인해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어 조기교육을위해 남녀공학으로 신설될 이외국어고교는 83년도부터 학생을모집, 개교할 예정인데 학생선발은 실업계와동시에 전기전형으로한다.

외국어고교 응시자는 합격되면 후기일반고교에 입학할수없고 불합격자는 인문고교에 다시 배정받을수 있게 된다.

모집인원은 12학급 6백60명이며 학급당 인원은 55명선이다.

응시자격은 고입선발고사를거친 서울시내거주 중3생과 고입검정고시 합격생으로 고입선발고사성적 (2백점만점) 과 별도로 실시하는 영어고사 (2백점만점)를 합친 4백점 만점으로 사정하며 학교의 특수성을고려, 중학교2학년 영어성적이 「우」이상인 학생들만 지원할수있도록할 방침이다.

世宗文化賞수상자 5명결정

올해부터 처음 제정된 제1회 世宗文化賞수상자로 문화부문에 洪一植(高大民族문화연구소장) 예술 張師勛(서울大명예교수) 학술 李泰圭(과학기술원명예교수) 과학기술 鄭汶奎(한국에너지연구소원자로공학부장) 교육 春愛(舞鶴女高교장) 국방부문에 국방관리연구소가 각각결정됐다.

이들 6명 (단체 포함) 에 대한 시상식은 9일상오10시 중앙국립극장에서 거행되는 5백36돌 한글날 기념식을겸하여 갖게된다.

延世大原州大 기공

延世大는 8일하오3시 강원原城郡 興業面 梅芝里에서 安世熙총장등 교내외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延世大原州大 기공식을가졌다.

60만평 부지에 97억여원을 들여 인문학관, 과학관등 8천4백여평 규모로 건설될 原州大는 내년 3월 준공 예정.

梅芝里 캠퍼스가 준공되면 原州시내에는 의과대학만 남게되고 나머지학과는 모두 梅芝里캠퍼스로옮겨가게된다.

故李活씨 實業人葬

貿易協會명예회장이며 학교법인 高麗중앙학원과 産學協同재단이사장이던 故牧堂李活박사실업인장이 8일상오10시 高麗大學교정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李東燦·朴忠勳·金容元·金元基·柳瑞·許씨등 재계인사와 金俊燁高大총장·俞鎭午박사등 교육계 및 정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영결식이 끝난뒤 고인의유해는 장의차에 옮겨져 평시에 몸담았던 무역회관앞을거쳐 이날하오 龍仁가톨릭묘지에 안장됐다.

날씨 快晴

週末 黃金연휴

10월의 두번째 황금연휴주말동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다소 구름이 낄뿐 전형적인 가을날씨가 될것같다.

중앙기상대는 연휴 첫날인 9일에는 최저 8~15도 최고가 25~27도, 10일엔 최저가 9~15도 최고24~28도가되며 이틀동안 전해상의 파도는 차차 낮아지겠다고 예보했다.

한편 7일상오 大關嶺지방의 지표기온이 급강하, 금년들어 처음으로 영하의날씨(영하1도9분)를 보여 첫얼음이 얼었다.

금년 첫영하의 날씨는 예년에비해 8일, 지난해에 비해서는 23일이 늦었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가난이 獨立鬪士 죽였다

日人 중대장 죽인 光復軍 桂義成씨

陸士8期 중령豫編 사업실패하고 病苦

71년 碧蹄 日人위령탑 불지른 장본인

일제말기에 日本軍에 입대했다가 日人 중대장을 군도로 베어죽이고 병영을 탈출, 광복군으로 활약했던 독립투사 桂義成씨(58·경기金浦郡陽村面樓山4里198의1)가 지난6일 생활의 어려움을 비관하고 목을 매자살했다.

桂씨는 지난 69년 애국지사급 독립유공자로 뽑혀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해왔는데 최근에는 어려운 살림에 당뇨병까지 겹쳐 고생해 왔다는것.

桂씨는 평북宣川에서 출생, 新義州공업학교를 졸업한 후 日本軍에 입대했으나 日本人 중대장이 한국인 병사들을 「조센징」이라고 모멸하자 군도를 빼 중대장을 살해한후 일본군 병영을 탈출, 西安의 광복군 제2지구대에서 광복군으로 활약했다.

해방후 桂씨는 육사8기생으로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활약했고 5·16직전 중령으로 예편한후 파월근로자로일해 벌어온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한후 가난한 병고에 시달려왔었다.

의협한 성격의 桂씨는 지난 71년에는 경기碧蹄에 세워진 일본인 위령탑에 불을질러 국민의 관심을집중시키기도 했고 2주전 군복무중인 차남 聖憲씨 (24)를 면회가서 『독립기념관 성금으로 5천원을 냈다』고 기뻐했다는 것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尹錦順씨 (51) 와 2남3녀가 있고 지금살고있는 방2칸짜리 집은 4년전 원호청으로부터 2백50만원을 대부받아 지은것이다.

한편 全斗煥대통령은 7일 桂씨의 유족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스턴,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LEON'S 가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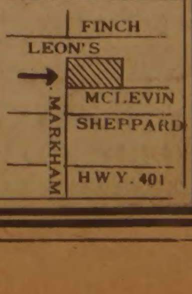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肉薄戰벌인 韓·比농구

亞洲청소년大會 한때競技 중단…남자팀 憤敗

우승展望 흐려져

【마닐라=李基洪特派員】7일밤 마닐라교외 아라네타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청소년농구 선수권대회 5일째 남자부B조 한국과 필리핀경기에서 양팀선수들이 충돌, 주먹다짐을 벌여 15분간이나 경기가 중단되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났다. B조에서 3승으로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던 한국과 필리핀의 경기는 우승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한판이었다.

싸움의 발단은 후반3분57초를 남겨놓고 필리핀의 엑토르·칼마선수의 공격을 한국의 鄭德和 林達植이 더블수비로 저지하려다 일어났다. 칼마가 드로잉을 받아 하프라인을 넘어오는것을 두선수가 마크하다가 3선수가 한꺼번에 넘어져 鄭德和가 제일밑에 깔렸으며 그위에 칼마, 林達植이 포개졌다. 고의적이 아니었다. 필리핀선수들이 흥분, 鄭德和에게 몰려들어 주먹과 발길질을하자 양국선수들이 뒤엉켜 난투극을 벌였다. 경찰관의 제지로 간신히 사태가 수습되었으나 흥분한 필리핀 관중들은 직경 4㎝가량의 무거운 1페소짜리 동전을 한국선수들에게 던졌다. 한국선수들은 유니폼과 수건으로 몸을 감싸 부상을입지 않았으나 한국벤치뒤에서 관전하던 교포여학생 1명이 얼굴에 동전을 맞아 피를 흘렸으며 李康穆단장의부인 姜泰禮씨와 金勝圭여자코치가 경상을 입었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것은 마리오·호펜하일주심(우루과이)이 일방적으로 필리핀을 봐주는 편파적인 판정을 했기때문이다. 이경기서 한국은 필리핀에 81-74로 패해 3승1패를 기록했다. 해외원정 경기에서 농구선수들끼리 충돌한 불상사는 지난66년 방콕서 열렸던 아시안게임 한국-泰國전이후 처음이다.

◇제5일전적
▲남자B조
필리핀 81 (42-40, 39-34) 74 한국
(4승) (3승1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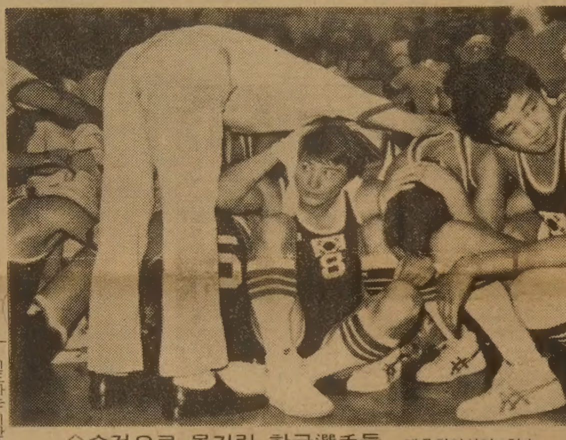
심판 편파判定

한국-필리핀전의 호펜하일주심은 처음부터 한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 한국의 주전센터 金裕宅이 슛을 날리면서 반칙을 선언, 金은 경기시작 25초만에 3파울을 기록하는등 교체됐다. 金은 6분만에 5반칙으로 퇴장했는데 후반 다시들어온 … 1골밖에 넣지못했다. 반면 호펜하일주심은 필리핀의 주전센터 알파레도 킹을 위해서는 눈감아 한번도 반칙을 선언하지않았다.

女子는 泰눌러 5連勝

【마닐라=李基洪特派員】한국청소년여자농구팀이 약체 泰國을 121-27로 대파하고 5승으로 제7회아시아청소년농구선수권대회 여자부에서 단독선두를 지키고있다. 8일 마닐라 아라네타체육관에서열린 대회6일째경기에서 한국은 金銀淑 李美子 金英姬 崔敬姬 成貞玉을 스타팅멤버로 기용, 80년방콕대회 3위팀인 泰國에 슛세례를 퍼부어 전반서 68-10으로 승리를 굳혔다. 이게임에서 金銀淑은 18분을뛰어 최다득점인 25점을올렸고 成貞玉가 23점(32분), 金英姬이21점(21분)을 각각 뽑아냈다. 한국은 9일 對中共戰에이어 10일에는 印度와 예선리그 마지막게임을 벌인다.

◇제6일전적
▲여자부
한국 121 (53-17, 68-10) 27 태국
(5승) (4패)



◇수건으로 몸가린 한국選手들 제7회아시아 청소년 농구선수권대회 남자부 韓國과 필리핀 경기에서양팀선수들간에 주먹다짐이 벌어진 후 성난 필리핀 관중이 동전을 집어 던지자 한국선수들이 수건과 유니폼으로 몸을가리고있다. 【마닐라7日AP電送=聯合】

청룡기 고교축구 龍文·大田商 安養工·永工 4強대결로 압축

제37회 청룡기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4강은 龍文高-大田商, 安養工-永登浦工高의 4강대결로 압축됐다. 8일 효창운동장에서 벌어진대회 5일째 준준결승전에서 龍文高는 東北高와 맞서 후반20분께 李賢皓이 미드필드중앙에서 단독으로 치고들어가 슛, 결승골을 올려 1-0으로 승리했으며 大田商은 新興實高와 1-1무승부를 이룬뒤 승부킥 6-5로 신승했다. 작년도 우승팀 安養工高는 전반 3분과 후반 26분에 李成福·李正浩가 각각 득점, 徽新高를 2-0으로 물리쳤다.

◇제5일준준결승
용문 1 (0-0, 1-0) 0 동북고
대전상 1 (0-1, 1-0) 1 신흥실고 <승부킥 6-5>
안양공고 2 (1-0, 1-0) 0 경신고
영등포공고 0 (0-0, 0-0) 0 중동고 <승부킥 9-8>

崇義 여고부覇權

女高농구 李智惠결승골… 德成59·56 따돌려

1m62의 단신가드 李智惠가 崇義女高를 우승의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8일 장충체육관에서 폐막된 제12회 추계중고농구연맹전 최종일 여고부결승전서 崇義女高의 李智惠는 경기종료 7초를 남기고 드라이브인슛을 날려 51-51타이를 만들어 막 崇義의 진출을 결정적으로 … 았으며 연장전선는 역전결승골을 날려 德成女高를 59-56으로 꺾는데 수훈을 세웠다.

德成女高는 朴順玉의 포스트플레이와 吳仁淑, 徐元玉의 중거리로 게임의 주도권을잡아 전반을28-19로 리드한후 후반 2분여를남기고도 4골차의 리드를 유지했다. 그러나 崇義女高의 마지막 카드인 타이트맨투맨을 깨지 못해 타이를허용한후 연장전에서 분루를 삼켰다. 이날 崇義는 金忠美, 蘇才眞, 文惠珠등이 고비에서 분전하고 李智惠의 폭넓은 게임운영과 결정타에 힘입어 德成에 역전승, 6년만에 패권을 되찾았으며 쌍룡기대회에 이어 금년2冠王이 되었다.

◇최종일 결승
▲여고부
숭의여고 59 (19-28, 32-23, 8-5) 56 덕성여고
▲남고부
마산고 63 (37-32, 26-30) 62 전주고

WBA會長 멘도사

【상항AP=聯合】세계권투협회(WBA)는 베네수엘라의 길베르토·멘도사를 2년임기의 WBA회장에 선출했다.

멘도사는 지난9월 사망한 파나마의 로드리고·산체스의 후임으로 선출됐다. 그는 미국의 로버트·리보를 41-32표로 물리치고 WBA회장자리를 차지했다.

프로복싱 韓·比戰 오늘申喜燮-카르포

프로복싱 경량급 유망주 申喜燮은 9일하오 장충체육관에서 前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F)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 시오니·카르포(필리핀)와 10회 논타이틀전을 갖는다.

현재 WBA플라이급 4위에 올라 있는 申은 21승(8KO)1무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왼손잡이인 카르포는 WBA주니어플라이급 8위로 32승2무6패의 전적을 갖고있다.

베니테스 12월3일 헌즈와 防禦戰

【뉴욕AP=聯合】세계권투평의회(WBC) 슈퍼웰터급챔피언 윌프레드·베니테스(24·푸에르토리코)는 오는12월3일 前세계웰터급 챔피언인 토머스·헌즈(24·미국)를맞아 타이틀방어전을 갖는다고 그의 프로모터인 돈·킹이 7일 발표했다.

또한 WBC슈퍼밴텀급챔피언 윌프레도·고메스(26·푸에르토리코)도 같은날 WBC밴텀급 챔피언인 과달루페·핀토르(멕시코)를 맞아 방어전을 갖는다.

아직 대전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

朴利熙8強에 세크레탱꺾어 홍콩 월드컵卓球

【홍콩AP=聯合】한국의 朴利熙는 7일 세계16대 탁구스타들이 참가한가운데 홍콩에서 열리고있는 제3회월드컵탁구선수권대회 D조 3차전에서 유럽챔피언이자 프랑스의 에이스 자크·세크레탱을 2-0(21-12, 21-13)으로 격파하여 2승1패를기록, D조에서 헝가리의 75년 세계챔피언 이스트반·조니에르와함께 8강이 겨루는 준결리그에 진출했다.

朴利熙는 8일 지난대회우승자인 中共의 郭耀華와 준결승리그 첫경기를 갖는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한국、말聯 격파 準決진출 확실

머라이온컵蹴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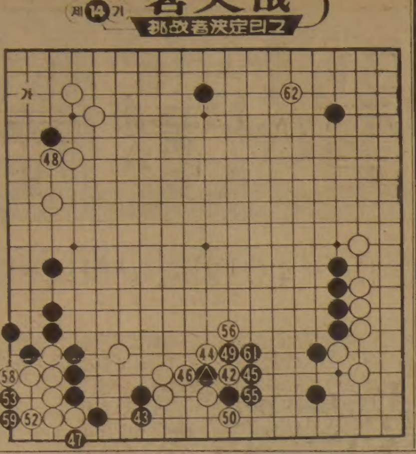
【싱가포르 UPI AFP=聯合】한국은 7일밤 싱가포르국립경기장에서 벌어진 제1회 멀라이언컵국제축구대회A조 2차전에서 말레이지아를 3-1로 격파, 2연승을거두어 준결승진출이 거의확실해졌다.

한국은 후반24분 FW 朴潤基가 선제골을터뜨린후 白鍾英과 李太燁이 34분과 39분에 각각 1골씩을 추가했다.

◇7일전적
▲A조
한국 3 (0-0, 3-1) 1 말레이지아
(2승) (1승1패)
▲B조
싱가포르 7-0 브루네이
(1승1패) (2패)
호주 4-0 태국
(1승) (1패)

名人战 제14기 挑战者決定리그

第1局 第5譜 43~62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 能 旭
黑(4段) 姜 勳



라이벌끼리의 싸움은 자칫 묘한 오기가 발동하기 쉬운법。당초 좌하귀 白에게 후수삶을 강요한것이 빛나기는 … 또한 黑43으로 내려서서 「이래도 살지 않을테냐」고 위협한다. 그렇다고 순순히 귀를 살아놓을 수 … 답이 아니다. 또 아직은 그럴시기도 아니다. … 급한곳은 白42로 젖히는데 …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한데 白44가 그만 문제의 묘를잃은 완착일뿐이야。趙南哲8단은 「여기서는 의당 55자리를 단수해야 되었다」며 참고도를 제시했다。즉 △표에대해 黑1、白2 이면 3、4로 따낸다음귀 … 시작한다。

새로운 局面으로

… 6단은 좌상귀쪽 黑1 점이 48로 다음 黑가 … 로 귀삶이 할까 신경 쓸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실전처럼 白44 이하 46 때 黑47로 좌하귀를 잡 … 이다。 黑49에서 白50이하 黑61까지 이렇게 돌릴 … 白이 선수를 잡고、62에 선착하여 새국면이 벌어지려한다。 51、57…▲54、60…42
【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緒 作
金光培 畫
<236>

안개속의 집 ③

실상 허탈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의 작은 일거수 일투족, 시시각각도 허탈치 지않으려고 치밀하게 계산된 하루였다. 그런데도 허탈친 것같은 패배감이 수지를 남루스럽게 했다.

그녀는 경대앞에 우두커니 앉았다가 생각난듯이 목걸이 귀걸이 반지등을 빼서 서랍속에 챙겼다. 아직도 미모와 젊음에 자신만만하건만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잎을 다 떨군 나무처럼 적막해보였다.

천기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기욱이 천기사를 대단한 손님처럼 마당까지 배웅하면서 떠벌리고 있었다. 아랫사람은 좀 심하게 길들여야한다는 그녀의 주장을 기욱이 그런 방법으로 무시하고있다는 것을 그녀도 모르지 않았다.

싸울때가 된것 같았다. 보통의 좋은 부부가 흔히 그렇듯이 그들도 자주 싸웠다. 그 싸웠다기보다는 티격태격이란 표현이 알맞은 어린애들같은 입씨름이나 가벼운 의견충돌들이어서 그들은 언제 그랬더냐싶게 오손도손해졌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그들의 부부싸움은 갑작스럽지 만은 않게됐다. 그렇다고 부부싸움이 잦아진 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교양인답게 또 이들의 정중한 부모답게 고상한 말과 낮은 음성과 냉정한 표정으로 잠깐만 싸웠다.

그러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언제부터랄 것도 없이 그 낮은 음성속에 가시를 숨기게 됐다. 가시에 찔린 쪽에선 싸움때의 달콤한 화합대신 고약한 피해의식을 품게되고, 그걸 보상받기위해 다음엔 손톱을 숨기고, 손톱에 할퀴어진 쪽에선 비수를 숨기게 됐다. 숨기는 흉기가 악랄해질수록 후유증도 심각해졌다. 서로 자기가 상대방을 상하게한 생각은 빼먹고, 상대방이 자기를 상하게한것만 잊지않으려들었고 두고두고 아파하려 들었으니까.

그러나 기욱도 수지도 각자 자신있는 근거에 의해 그들의 결혼이 마지막파탄에까지 이르리진 않을것을 알고 있었다.

그걸 알고 있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었다. 서로 상하게하는 방법이 점점 더 조심성이 없어지고 악랄해질 뿐이었다.

수지는 오래간만에 기욱과 싸울까말까를 망설이는 마음이 생겼다. 그걸 정하기전에 그와 맞다뜨리는 것만이라도 피하고 싶었다.

그녀는 부랴부랴 외출복을 벗고 욕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한꺼번에 엄습했다.

그와 싸우고 싶지 않은것도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몸이 지쳐있기때문인가? 수지는 자조하듯이 그렇게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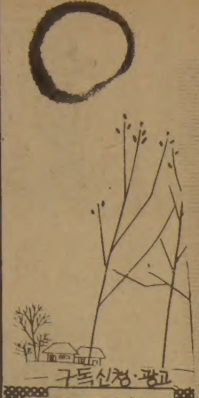
몸이 해초처럼 흐느적대며 풀어지는 느낌과 함께 그녀는 조금 좋았고 조금 울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수없었다.

고아원 아이들이 때때옷입고 노래부르는 걸 들으면서도 그녀는 적당히 눈물을 그렁였었다.

아이들로부터 선물을 받을때도 그녀는 아이들을 하나 하나 껴안고 볼을 부비며 울먹였었다.

아이들한테선 뜬내 비슷한 냄새가 났고 아이들의 몸은 작고 굳어있었다. 그녀는 이들한테 전혀 애정을 느끼지 않고서도 적절한 시기에 울수가 있었다.

고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녀노릇에 스스로 도취해서였다.



예배에의 초대
주일오후 2:00시 (한국어·영어)
개혁장노교회
(문의 492-9889)
1355 Warden Ave, Scarboro
(Elsmere & Lawrence 사이)
THE WORD OF GOD-INCARNATE
THE FAITH OF 16C-REFORMERS
하나님의 말씀·개혁자들의 신앙

GOLDEN CHINA 新金國酒家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디리자 BAND－기타 : 신상철
올겐 : 함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내고향통닭집
칼국수
오뎅 전문
통만두
658½ BLOOR ST. W.
☎ : 537－0432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시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시신후에 분재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인구

Richard Y. 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처드·왕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필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軍機構 개편작업 착수"

政府、국회답변 上部구조 少數精銳化·防産法추진

"言論활성화 대책없나" 질문

"歷史교과서 全面개편" 답변

국회본회의는 7일하오 정치외교안보문제에 대한 對정부질문을 끝내고 8일부터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에 들어간다. 6일에 이어 이틀째계속된 7일의 對정부질문에서 與野의원들은 지방자치제、各級선거법과 언론기본법등 改革立法、정치활동被규제자解禁、정치회복문제등을 두고 攻防을 전개하면서 정부측의 견해를 추궁했다.

"復學、학원분위기 조성되면 解決될것"

金相浹국무총리는 이날 제5공화국의 正統性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제5공화국은 合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미흡한점이 없다고 본다』면서 『역사의 커다란단절이후의 過渡期에서 연속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런저런얘기가 있을수 있으나 새로 제정된 헌법에 대통령單任制가 명시되어 있고 대통령에 당선된분이 單任을 거듭약속、평화적 정권교체를 여러차례 천명하고있기때문에 금후로는 이런문제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金총리는 또 6일 밝힌 地方自治制실시에 관한 답변을 보충설명하면서 『지방자치제 실시는 財政自立度를 감안、순차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자는 뜻으로 말했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일괄적으로 동시에 구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있는 사람도 있다』고 해명했다.

金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學園사태에 대해 『除籍학생들은 학원사태에서 비롯된것으로 공부하고자하는 열의와 학원분위기가 조성되면 當該대학에서 검토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金총리는 또 『韓國史에 대한 체계적인 심층연구는 절실한것』이라면서 『대학과 연구소를 총동원 古代史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구를하며 國史學후계자를 양성하고 역사교과서를 전부새로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尹誠敏국방부장관은 『物量의 감소와 美國의 수출제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防衛산업의 육성을위해 防衛산업기본법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尹장관은 『硬直性경비가 많은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軍機構개편작업에 착수、금년 7월 작업계획을 완성하여 5개년계획에 착수했다』고 말하고 『上部구조의 少數精銳化로 피라미드型 조직과함께 類似기구를 통폐합하고 행정병력을 전투병력으로개편、약 9백40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있다』고 밝혔다.

尹장관은 따라서 『節減된硬直性경비를 戰力증강을 위한 투자비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질문에서 黃明秀의원(議政)은 ▲언론의 활성화 ▲구속인사의 赦免과 復權▲징계학생의 復學▲정치활동被규제자의 전면 解禁▲各級선거법을비롯한 정치관계법의 개정등을 제의하면서 『政局안정과 국민和合의 길은오직 민주발전』이라고 주장했다.

李致浩의원(民正)은 야당이 주장해온 정치활동피규제자解禁과 地自制실시 改革立法改廢주장에 대해 反論을 제기했다.

그는 地自制에 언급『대도시중심으로 먼저 실시할경우 違和感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면서 『法은 자주바뀌면 一貫性이 없어져 不信과무질서를 초래한다』고주장했다.

韓光玉의원(民韓)은 ▲국회기능의 활성화▲언론의 自律化▲地方자치제의 조속실시▲各級선거제도개선▲정치규제자의 解禁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회가 제기능을발휘할때만이 정치는 거리에서 방황하지않고 體制論爭도 정치권밖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보복이 있는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있을수 없으므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있는 정치보복의 인상을주는 모든 조치는 풀어져야한다』고 전제한뒤 『정치 피규제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어 현정권의 안정을 內外에 과시하고 대통령 자신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종지부를 찍자』고주장했다.

◇7일하오 국회本會議에서 의원들의 對정부질문이 시작되기직전 金相浹총리(右)가 국무위원석으로 찾아온 李建鎬의원(民正)과 무엇인가 얘기를 나누고있다。그뒷줄은 盧泰愚내무(左), 裵命仁법무장관。

年末資金사정 어렵다

팽창通貨量 "강력還收"

韓銀은 추석을 전후해서급격하게 늘어난 통화를 강력히 환수키로했다。이에따라 연말까지 시중자금사정은 다시 빠듯해질것같다。

7일 韓銀이 집계한 9월말현재 통화추이를보면 추석을 앞둔자금수요에따라 총통화(M2)는 지난해같은 기간에비해 33.5%가 늘어났고、특히 통화(M1)는추석연휴를 두고 폭발적으로늘어나 전년동기대비 무려 68.7%가 증가했다。화폐발행고는 43.1%나 늘어나는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韓銀은 이처럼 과잉살포된 통화가 물가및투기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총통화를 30%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강력한 환수작업을 펼침으로써 자금사정이 크게압박을 받게됐다。특히 10월말께부터 6천5백억원에 달하는 추곡수매자금이 방출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신규대출규제및 기존대출금회수가 불가피해졌다。

在外한국僑民 일동 1萬8千달러

(8개국 달러換算)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東南亞平統자문위원 일동 美貨3천4백달러

在獨한국교민50명 西獨貨1천3백50마르크

在케냐한국교민일동 美貨5백달러

在케냐파라다이스投資개발임직원 美貨3백달러

在가나한국인부인회 美貨1천50달러

在사우디한국식품업체 凡龍交易 2만5천리얄

中南美지역平統자문위원26명 美貨1천2백달러

在인도교민회일동 美貨1천45달러

在이집트거류민회일동 美貨3천6백달러

▲동남아지역평통자문위원 一同=美貨1천7백44달러、호주貨1천8백달러 (美貨1천7백달러상당)【駐호주대사관접수】

▲在獨교민50명=서독貨1천3백50마르크 (美貨5백30달러상당)

▲在케냐교민 一同=美貨5백달러 (성금기탁자명단2면)

▲在케냐파라다이스투자개발 (株) 사장 허덕행씨외임직원 一同=美貨3백달러

▲在가나 한국인부인회=美貨1천50달러 (성금기탁자 명단2면)

▲在사우디한국식품업체 凡龍交易대표 裵龍河씨외직원 一同=사우디貨2만5천리얄 (美貨7천3백50달러상당)

▲중남미지역 평통자문위원 26명 (회장 이정구 브라질위원)(駐베네수엘라 대사관접수)=美貨1천2백9달러30센트

▲在인도교민회 一同=美貨1천45달러

▲在이집트거류민회 一同=美貨3천6백35달러、금지환2점 (카이로총영사관접수) (성금기탁자명단2면)

<7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孫道翼씨

◇金昌圭씨

◇황교장씨

慶東炭礦(株) 孫道翼대표 外 5백48만원

主婦生活·(株)主友 대표外 3백2만원

大元旅行社·觀光·旅客 2백74만원

金剛皮革(株) 金敏植대표 外 1백50만원

亞東産業(株) 金昌圭대표 外 1백24만원

國都化學工業 李杉烈대표 外 1백10만원

水原聖民企業 黃敎章대표 外 1백1만원

▲慶東炭礦(株) 대표이사孫道翼씨外本社임직원一同=5백48만8천8백59원

▲主婦生活·(株)主友대표이사金永壽씨외임직원一同=3백2만2천9백76원

▲(株)大元旅行社·大元觀光·大元旅客(株) 대표이사 許明會씨外 任職員一同=2백74만3천5백24원

▲金剛皮革(株) 대표金敏植씨외임직원一同=1백50만원

▲亞東産業(株) 대표이사金昌圭씨외임직원一同=1백24만4천8백원

▲國都化學工業(株)대표이사 李杉烈씨外 임직원一同=1백10만2백70원

▲水原聖民企業대표 黃敎章씨外 직원一同=1백1만8백70원【水原지사접수】

▲永登浦신한예식장대표 鄭俊錫씨=50만원

▲平澤전매서직원및소매인一同=47만6천2백60원【平澤지국접수】

▲駐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부인회(회장 李英子 한우석대사부인)=美貨7백달러

▲在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학교교직원및어린이一同=美貨4백달러【자카르타지국접수】

한국일보詩壇

梨谷里에서

金海星

토종벌 부부가 잠든 나리꽃속
노오란 이야기가 피어 오르면
梨谷里에 땡볕이 내려 찌는데
老姑山 너머 산지노인은
먹구름 흐르는 산발에 서서
가뭄든 갈오년을 다시 찾는다.
갈갈이 찢긴 할매의 삼베적삼
일흔해동안 땀고인 등뒤에서
어린 손자놈의 울음이 보채는데
매미떼의 마지막 울음소리
「괄릉내」앞뒷산을 흔들면
수많은 이름모를 산꽃이 핀다.
땅을 파고 씨를 뿌리며
착하게, 착하게만 살아온
老姑山 밑의 梨谷里 사람들
오늘도 몇십대를 두고 두고
이렇게 故鄕지켜 살고있는
늙고 젊은 형제들이 있다.
해마다, 해마다 마을에 섰는
은행나무 열매가 익어 가면
노인들 주름살이 피는데
나리꽃 피어있는 산길을 따라
내 마음의 고향같은 宮밭에 서면
멀리서 山家의 닫힌 사립이 열린다.

한국일보구독은 533-2361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치과의사 일동

金星社 美컬러TV工場 오늘竣工 본격生産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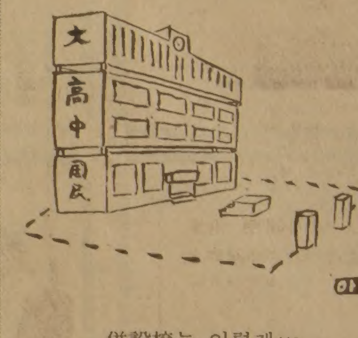
우리나라기업으로선 처음으로 美國에의 직접투자로 이뤄진 金星社 美國컬러TV공장이 8일새벽 (현지시간 7일상오)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美國앨라배마州 헌츠빌市에 건립된 금성사컬러TV공장 준공식엔 우리나라측에서 具滋暻럭키그룹회장、許準九부회장 許愼九 금성사사장이 참석했고 미국측에선 폽·제임즈 앨라배마州知事 조·데이비스헌츠빌市長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江原·忠淸공개경고 新聞倫委결정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洪承萬)는 소설「잔혹에 가득한 밤」(李寬鎔작)을 연재하고있는 江原日報와 忠淸日報에 대해、봉욕한 소녀의 부친성명 또는 주소를 공개한 全北新聞과 光州日報에 대해 각각 公開警告 했다。「잔혹에 가득한 밤」은 음담패설과 선정적인 묘사로 신문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지적됐다。

社會漫評



倂設校는 이렇게…

地平線

서양연극과 무대를 처음 구경한 한국인은 俞吉濬이고 다음이 閔泳煥이 었다。우리나라 최초의 극장공연이 베풀어진것은 1902년「笑春臺遊戲」라는 演戲를 상연한 協律社무대였다。당시 연희에 대한 식자들의 태도는 몹시 근엄했다。「호탕한 春風麗日에 春情을 탐하는…蕩子治女의 春興을 도발한다」고 皇城新聞 기사는 소리를 돋구어 꾸짖었다。광대나 놀이꾼을 천시한 사회분위기의 水位가 짐작이 간다。이즈음 서양의 활동사진도 첫선을 보였다。英·美연초회사에서 담배선전을 위한 상연이었다。

▼창업은 쉽지만 守成은 어렵다고 한다。그러나 창업엔 개척과 선구「정신」이 요구된다。守成의 고난보다 창업의 수난이 덜할 수 없다。새것이 탄생할땐 기존의 저항을 받게 마련이다。새로운 신앙엔 殉教가 따르고、예술의 창조는 현실의 외면을 이겨내야한다。초창기 국영화는「놀이의 賤視」라는 풍토를 헤치고 태어나야 했다。「사람의 힘은 모든것을 창조했다。예술을、또한 종교를、이것은 세계의 핵심을 이룬다」고 A·로댕은 말한다。

▲한국영화사에서 羅雲奎의 예술적 천재는 이 「사람의 힘」이 분출한 뛰어난 표증이다。그래서 「아리랑」은 우리 영화정신의 본보기로 기리고있다。예술에의 애정은 프로페셔널리즘이 뒷받침해줘야 그빛을 발한다。직업의식 없이는 전문적인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다시 태어나도 연기를 하겠다」는 名優 버그먼의 말은 배우로서 직업의식에 투철함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된다。우리는 그의 품위있는 미모와 함께 「배우정신」을 잊을수 없는것이다。

▲요즘 한국영화는 총체 침체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린다。低質로 관객이 줄고、관객이 주니 더 低質이고…。다람쥐 체바퀴 도는듯한 탄식이 그치지 않는다。창업보다 지키기가 이리도어려운것일까…。원인이야 많겠지만 영화인들의 프로페셔널리즘의 결핍도 꼭 지적해둬야 하겠다。

▼지난5일 별세한 卜惠淑할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월급을 받은 여배우다。1925년연극단체인 土月會는 石金星과 함께 그에게 그때돈 80원의 봉급을 지불했다。예술과 직업의 결합이 제대로 이뤄진것이다。사라진「78세의 現役」에서 배울것은 끝까지 지켜온 프로페셔널리즘이다。우리 영화가 뚫고 나갈 길이 보일듯 하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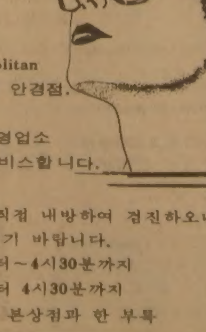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블루어안경



❖ Rodenstock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Green Shieleld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Contack Lens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안과의사 사무실은 본상점과 한 부록 떨어져 있음)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 ~8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 (R)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산요 자동·보온밥솥

왜 산요(Sanyo)를 사느냐구요?
—세계에서 제일많이 팔리는 밥솥입니다.
—언제나 가격이 경쟁적입니다.
—보온을 하기 위한 단추가 두개씩 있읍니다.
—두개의 회로가 연결돼 열효율이 더욱높다.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켙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켙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ÉAL
● ASIAN FOODS—VANCOUVER

종합보험

김홍랑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안개속 怪潛艦

——스웨덴 超緊張… 그 正體는

스톡홀름남부 스웨덴 비밀군사기지 무스코港 일대에서 怪잠수함 수색작전이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깊은 관심속에 1주일째 계속되고있다.

예상 잠복해역인 하르스예르트 출입구에 對잠수함 금속철망을 부설, 퇴로를 차단하고 40여척의 함정과 10대의 헬리콥터를 동원한 물샐틈없는 잠수함 헌팅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지금까지 19개의 수중폭뢰가 발사됐는데 스웨덴 해군 당국은 소량의 기름이 수면에 떠오르는 것으로 보아 잠수함은 틀림없이 이 해역에 아직 잠복중일 것으로 믿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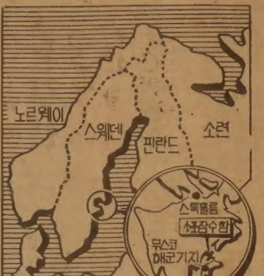
이 잠수함은 지난 1일 무스코 해군기지 근해상에서 잠망경을 삐죽이 내밀었다가 스웨덴 초계정에 위치가 들통이 나자 물속깊이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재래식 잠수함이라면 지금쯤 물위에 떠올라 신선한 공기를 다시 공급받아야 하는데도 도대체 감감무소식이다. 더군다나 위치가 비교적 분명히 노출된 상태에서 폭뢰공격을 당했으니 당연히 浮上이 돼야옳다. 이때문에 일부해군전문가들은 怪잠수함이 원격조정의 無人잠수함 아니면 폭뢰공격에도 견디는 소련 특수 최신예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잠수함이 탈출을 꾀한다면 격침시킬 것이나 물위에 떠올라 國籍을 밝히면 석방할 용의가 있음을 스웨덴해군당국은 표명해놓고 있다.

서방에서는 怪잠수함이 소련의 스파이잠수함일것으로 본다. 스웨덴에서도 같은 추정을 내리고 있는 듯 하다. 서독과 미국등 잠수함 보유 서방국가들의 잠수함이 사건해역에 들어간일이 없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國際焦點



소련은 스웨덴의 12마일領海 혹은 公海에 수없이 잠수함을 보내왔다. 그것이 첩보활동을 위해서라는 추측은 충분한 신빙성을 갖고 있다.

총 2천7백㎞에 달하는 스웨덴 해안선은 발트海에서 北大西洋을 연결하는 東西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략海路다.

◇스웨덴해병대가 6일 함정과 헬리콥터를 동원, 무스코 해군기지부근의 스웨덴領海깊숙이 침투, 숨어있는것으로 알려진 국적불명의怪潛艦에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있다.
【무스코해군기지부근해역 (스웨덴) 7日UPI=東洋聯合】

蘇의 최신無人정찰 潛艦인듯

나토·蘇 이해걸린 北유럽의 要衝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스웨덴, 소련 모두의 이해가 걸린 군사구역인 것이다. 발트해에 갇힌 소련의 大함대가 이 해역을 빠져 北大西洋으로 나가지 못하면 NATO軍과의 대결에서 패배는 어쩔 도리가 없다. NATO는 유사시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 좁은 해협의 길목을 지켜 소련함대의 진출을 막을 것이다.

북극 핀란드 접경지대로부터 남쪽 덴마크해협에이르기까지 스웨덴 내륙과 해안선엔 약 4천여개의 군수물자 비축기지와 비밀군사기지가 산재해 있다. 스웨덴은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스위스와 함께 민방위시설이 세계 으뜸이며 重무장국가다. 4백30대의 고성능 전투기를 보유한 공군력은 유럽에서 손가락을 꼽는다. 육해공 상비군은 평소 6만4천에 불과하나 82시간이면 70만명의 예비군을 동원할수 있다.

소련은 이런 무장 중립국에 한편으로는 평화공세를 펴면서 군사시설에대해서는 은밀히 정탐활동을 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은밀한 스파이활동에 가장 적합한것은 말할것없이 잠수함이다. 水中을 潛行하기 때문에 위치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다. 스파이잠수함은 초정밀전자첩보시설을 갖추고 수면에 잠망경을 내밀어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전파교신을 도청, 분석해낸다.

지난해 10월29일 스웨덴의 또다른 비밀지하군사시설이 있는 카를스크로나港 15㎞밖 해상에서 소련의 核잠수함이 좌초, 스파이활동이 탄로남으로써 소련은 정치·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렸었다.

중립국인 北歐3國(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 취한 소련의 평화공세가 치명타를 당했다. 소련은 항상 미국이 이들 세나라를 NATO에 가입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北歐3國을 非核지대화하자고 주장해왔었다. 마침 유럽을 휩쓴 反美·反核운동의 물결을 타고 이미지 쇄신을 노리던 브레즈네프의 평화공세는 이사건으로 빛을 잃고 말았었다.

그후 불과 1년만에 소련은 또 한번 발목이 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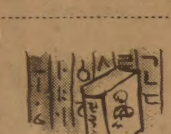
소련은 발트海에서 하고싶은것은 무엇이든지 해왔으며 또 그 활동이 위축당하는 것을 원치않음을 확실히 해주고 있다.

소련의 정탐활동에 과민한 스웨덴은 발목을 쉽사리 놓아주지 않을것이다. 최대한 反蘇캠페인을 전개, 소련을 궁지에 몰면서 소련의 정탐행위에 확실한 쐐기를 박아두려 한다.

이번 怪잠수함이 소련國籍의 잠수함으로 판명이 될경우 스웨덴은 물론, 北歐3國, 그리고 유럽과 소련의 외교관계에 다시한번 돌풍이 몰아칠것이 분명하다. 【崔相鎬기자】

메아리

우리말 사전



金聖佑 <編輯委員>

당신은 우리말사전을 가지고계십니까? 이 질문에 사람들은 잠시 어리둥절해질것이다. 우리말사전 한권쯤 없는 집이 어디 있으랴 싶을는지 모른다. 어느 가정에나 학생 한둘은 있고 그 아이들 방에 가면 포키트판 국어사전정도는 다 있을것 아닌가.

그러나 아이들 방에 있는 것은 아이들 것이다. 아이들방 책꽂이에 微積分 참고서가 꽂혀있다고해서 「우리집 장서중에는 고등수학책도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웬만한 집에가서 응접실에 앉아보면 서가에는 많은 책들이 자랑스럽게 진열되어 있다. 세계문학전집도 보이고 대백과사전 한질도 으레 눈에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말사전은 어느 귀퉁이에도 없다. 이 많은 책들을 사전 없이도 다 읽을수 있다는 말인가.

대관절 우리말사전은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을까. 확실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출판사에 물어 종합해 보는 수 밖에 없다.

포키트판을 제외하면 우리말사전으로는 李熙昇편 「국어대사전」, 申琦澈·申瑢澈편 「새우리말사전」이 오래된 것이다.

한글학회의 「큰사전」이 1957년에 전6권으로 완간되었으나 지금은 絶版이 되었고 한글학회에서는 1968년부터 「큰사전」의 증보편찬에 착수하여 1985년에 완성할 예정으로 작업을 진행중이다.

「국어대사전」의 경우 1962년 초판이 나온 이래 처음 10년은 매년 1만부씩 팔리다가 그후로는 매년5천부정도가 나간다. 「새우리말큰사전」은 74년이후 지금까지 8년동안 약 4만부가 팔렸다. 두사전을 합해 한해에 1만부정도가 시판되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 두 사전외에도 76년에나온 현문사의 「한국어대사전」, 77년에나온 동아출판사의 「국어대사전」 등이 있지만 그 판매부수는 위의 두 사전으로 대충 유추할 수 있다.

6·25후로 30년동안 각고속에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해오고 있는 申琦澈·申瑢澈 형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말 사전을 잘 찾지않아 영어사전만큼도 보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탄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책방인 敎保文庫에 물어보면 국어사전은 포키트판, 大型版을 통틀어서 한달평균 4백권가량 나가는데 英韓사전은 7백50권이 팔린다고 한다.

20년전의 헌사전이 다 말짱할수는 없으니 우리나라에 깔린 큰 사전의 수는 베스트셀러 소설이 1년사이에 팔린양에도 훨씬 못미친다고 봐야한다. 전국에 TV수상기는 7백만대나 되고 전화기는 3백70만대에 이르고 자가용 승용차는 20만대가 넘는다. 무엇보다도 생활필수품이라야 할 우리말 사전이 자가용차처럼 귀하다. 국어가 영어만큼도 소중하지 않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 「우리말을 다 안다」는 위대한 誤解가 있다. 그리고한편으로는 「우리말은 몰라도 부끄럽지않다」는 위대한 誤算이 있다. 신문·잡지나 책을읽다가 모르는 말이 나와도 사전한테 물어볼 생각을안한다. 편지한장을 쓰면서도 맞춤법을 사전과 의논하는 법이없다. 영어스펠 틀리는것은 창피스러워도 우리말 맞춤법 틀리는것쯤은 실례로 여기지않는다. 그래서 손님는데 사전이없다.

불고기집에 가보면 「아롱사태」니 「제비추리」니하고 써붙인것이 근래에 부쩍 늘었다. 늘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말의 뜻을 물으면 모두 머뭇머뭇할뿐 정확히 어느뼈에 붙은 살이름인지 모른다. 소의 해부학을 왜 공부안했느냐는 말이 아니라 국어에대한 의문이 이렇게 다들 등한하다는 말이다.

「아아으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하는 대중가요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年前 한국일보견습기자 채용시험에 「으악새」의 뜻을 묻는 출제가 나왔을때 1천여명의 응시자중 「억새풀」이라는 정답을쓴 사람은 단 10명정도였다. 으악새란 말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사전과 친한지를 알아보려는것이 출제의도였다. 그토록 노래로 자주 불려온 말이라면 한번쯤은 국어사전을 뒤져여 보았어야 옳다.

최근에 작고한 鷺山의 時調중 「옛동산에 올라」는 가곡으로도 유명하다. 이노래의 제2절은 「지팡이 더져짚고 산기슭 돌아나니」로 시작된다. 그럼 「더져」가 무슨뜻이냐.

내일은 한글날. 이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한글날기념으로 우리말사전한권을 사가지고 올일이다.

무스코基地에 兵力 배치
스웨덴, 潛水夫등도 動員

【스톡홀름UPI=聯合】스웨덴은 6일 스톡홀름 남부의 비밀해군기지 인근에 침투한 괴잠수함 탐색작전에 잠수부를 동원하고 폭뢰를 추가투하한데 이어 연안 경비대와 육군보병부대에서 차출한 병력을 무스코기지일대에 배치했다.

한편 스웨덴의 잠수함탐색작전이 6일째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스웨덴해군및 서방군사소식통들로부터 이 괴잠수함이 소련의 첩보잠수함일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련은 이날 관영 타스통신을 통해 이같은 보도는 蘇·스웨덴관계를 손상시키기 위한 조작이라는 최초의 반응을 보였다.

蘇, 對中共관계 改善案제시
고위會談서 貿易·文化교류등

【北京AP=聯合】소련측은 北京에서 3년만에 처음 열린 中·蘇 고위급회담에서 양국간의 무역 文化및 학생교류등을 포함한 일단의 구체적인 상호관계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6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北京을 방문중인 레오니드·일리체프소련부외상이 中共부외상 錢其琛과의 6일회담에서 이같은 구체적인 中·蘇양국의 관계개선방안들을 열거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최근 중공고위지도자들이 언급한 내용들은 중공이 소련의 이같은 제의에 매우 민감한 입장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중공은 이러한 제의에 응하겠다고 동의함으로써 전략적인 문제에 관한 對蘇강경입장을 스스로 누그러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지도자들은 소련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한 對蘇관계에는 근본적인 개선이 없을 것이라고 되풀이 해왔다.

中共黨총서기 胡耀邦은 지난9월 12全大會에서 중공은 소련지도자들이 對중공관계 개선의사를 또다시 표해온데 대해 주시하고 있지만 중요한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日 地對艦 미사일SSM1
射程거리 1백50㎞로 결정

【東京=聯合】일본방위청은 현재 시험생산단계에있는 최신예 地對艦유도미사일 SSM1의 사정을 소련의 사할린을 비롯, 구나시리(國後), 시꼬딴(色丹) 등까지 공격목표로 할수있도록 1백50㎞로 정하는한편 오는86년부터 이를 육상자위대에 실전배치토록 방침을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7일 日방위청이 앞으로 대량 생산체제에 들어갈 SSM1지대함 유도미사일의 사정을 최근1백50㎞로 하기로 최종적인 비밀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SSM1의 사정을 1백50㎞로 정함으로써 일본자위대는 본토에서 처음으로 소련의 사할린 구나시리 시꼬딴등 소련령을공격권안에 두는 미사일을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일본단독의 순수한 기술에의해 蘇聯영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SSM1을 앞으로 생산하게 될 경우 專守방위를 목적으로하는 日本자위대의 「무기성능향상노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하는 새로운 국방논쟁을 불러 일으키게될것이라고 지적하고 방위청은 오는86년부터 양산체제에들어간다는방침아래 이미 국내생산에성공한 空對艦미사일 ASM1의 기술을 바탕으로 SSM1의 시험생산에 들어갔으며 육상자위대는 늦어도 88년까지이를 유사시 蘇聯의 일본상륙침공가능성이 가장높은 홋까이도(北海道)북부와 동부지역에 중점배치할 계획으로있다고덧붙였다.

◇레바논軍, PLO 不法체류자 搜索 레바논정부군이 팔레스타인人 불법체류자와 범죄혐의자들을 검거하기위해 펴고있는 가택수색작전 2일째인 6일 베이루트市 남부구역을 순찰하고있다. 이 수색작전으로 수백명이 체포되고 다량의 무기와 탄약이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루트 6日UPI=東洋聯合】

英·中共, 홍콩 장래協議시작

【런던·홍콩AP AFP=聯合】영국과 중공은 北京에서 홍콩의 장래에 관한 회담을 개시했다고 에드워드·유드 홍콩총독이 6일 홍콩의 입법기관인 立法審議會에서 밝혔다.

英國외무성은 같은날 유드총독의 이같은 발언을 확인하고 그러나 이미 北京에서 개시된 회담은 실질적인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외교적 접촉의 수준에서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美, 西獨내 民間電話 도청
蘇 가스管 情報입수 위해

【함부르크UPI=聯合】美정보당국은 소련천연가스관 건설공사계획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위해 西獨내에서 교신되고 있는 수천건의 민간전화통화를 도청하고 있다고 서독의 시사주간 슈테른誌가 5일 보도했다.

슈테른誌는 전직 美중앙정보국(CIA) 및 국가안보국(NSA) 통신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서독주둔美軍이 서독내의 모든 민간전화내용을 도청하기위해 새로운 전자전화망을 가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NSA전문요원들은 美통신전문기술자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서독정보당국의 협력을 얻어 수천건의 민간통화내용을 도청,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것으로 이 주간지는 전했다.

中共, 홍콩歸屬결정
97년 租借완료후에

【東京=聯合】중공은 영국의 조차기간이 끝나는 오는 97년 이후부터 홍콩을 중공영토로 완전귀속키로 결정하고 이를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홍콩發로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北京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홍콩소식통에 중공고위관리로 부터 이같은 홍콩의 中共귀속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히고 중공은 오는 97년부터 ①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한다. ②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③경제활동및 서민생활은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3대원칙아래 홍콩의 반환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브」後繼 지목 키릴렌코 危篤

【모스크바AFP=聯合】한때 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소련공산당정치국원 안드레이·키릴렌코(75)가 최근의 건강악화로 위독한상태에 빠져있다고 소련의 한비공식 소식통과 서방분석가들이 6일 전했다.

소련의 한비공식 소식통은 이날 AFP통신과의 회견에서 최근사망한 소련타타르공화국 제1서기 라시드·무신의 조문록에 키릴렌코가 빠진것은 그가 위독한상태에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蔣經國 보좌관 魏庚蓁씨 死亡

【臺北AP=聯合】蔣經國자유중국총통의 국가정책보좌관 魏庚蓁씨가 7일상오 심장병으로 별세했다. 향년76세.

海外토픽

東洋系학생 優秀性 입증
美 대입學力검사서 최고점얻어

아시아·太平洋系 미국학생들이 80~81학년도 미국대학입학학력검사(SAT)수학분야에서 백인학생들을 제치고 평균점수에서 최고를 기록한것으로 6일 밝혀졌다.

뉴욕의 한비영리사설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계학생들은 SAT수학분야에서 평균 5백13점을 기록, 전체평균점수 4백66점보다 47점, 그리고 백인학생들의 평균점수 4백83점보다 30점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구두시험 분야에서는 아시아·태평양계가 평균3백94점을 얻어 전체평균보다는 30점, 그리고 백인학생 평균보다는 48점이 낮았으나 백인학생들에 이어2위를 차지한것으로 집계됐다. 【시카고=PNA】

젊은觀客이 半이상
★伊映畵: 24세미만 더많아

이탈리아영화관객의 70%이상은 35세미만이며 특히 24세미만의 젊은이들이 전체의 약 반을 점하고 있다고.

이탈리아흥행협회의 의뢰에 따라 한 사설연구기관이 실시한 이조사에 따르면 피조사자중 34.8%만이 영화관에 이따금 가거나 정기적으로 간다고 대답했으며 이에 비해 73%의 사람은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은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영화를 시청한다고. 【로마=聯合】

◇83년 春夏服쇼 라우라·비아지도티양이 6일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열리고있는 83년 春夏기성복전시회에 출품된 세일러복 디자인의 의상을입고 선보이고있다. 【밀라노(이탈리아) 6日ANSA·UPI=聯合】

◇英女王 둘째아들 戀人 엘리자베드英國여왕의 2남인 앤드루왕자와 함께 비밀리에 카리브해의 한섬으로 휴가를 떠난것으로 알려진 美國태생의 英國여배우 구·스타크양(25)이 지난74년 성인영화 에밀리에 출연한모습. 【런던 7日UPI東洋=聯合】

西獨銀行갱 벨기에로 逃走
48萬달러갖고 警察제공車로

무장괴한2명이 6일 西獨의 한 은행에서 48만달러를 탈취, 경찰이 제공한 차편으로 인접 벨기에 국경을 향해 도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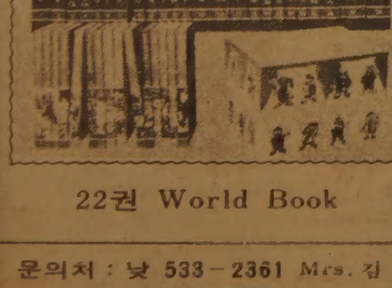
이들 괴한2명은 지난 5일 정오께 본 남쪽 38㎞의 코플렌츠시에 있는 한 은행에 권총으로 무장하고 여자용스타킹으로 복면을 한채 침입, 인질9명을 잡고 48만달러와 도주차량을 요구, 경찰과 18시간대치한끝에 경찰이 제공한 차량편으로도주했다.

괴한들은 인질을 모조리 죽이겠다는 위협이 진정이라는것을 증명하기위해 인질로 잡고있던 은행직원 1명의 무릎에 총을 쏘자 경찰은 이들의 요구에 굴복했다. 【콜론느(西獨)=AP·UPI】

議會회의때 芹談을 의무화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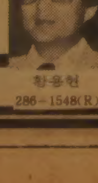
Special Offer
WORLD BOOK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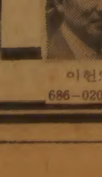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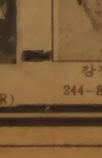
22권 World Book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주택
1. 마캄 & 윈치－4 Br.Rm, 방갈로, 잘 꾸며진 지하실, 싸우나, Fire Place 가격 : 12만4천9백불
2. 세퍼드 & 빅토리아 팍, 4 Br.Rm, 2층케미, 교통좋고 학교 가까움. 처음 사시는 분에겐 최적, 가격 : 10만5천불.
3. 에그링톤&빅토리아 팍, 3 Br.Rm, 콘도미니움, 수영장, 테니스 코트, 시내 가까이 좋은 주위환경, 학교 쇼핑센타 가까움, By Builter － 케더락 페어뷰에서 지었음, 가격 : 6만2천9백불
4. 돈밀스 & 로렌스, 3+1 Br.Rm, 방갈로, 고급주택가, 학교, 쇼핑가까움, 10¼% 몰게지, 좋은 환경, 잘 꾸며진 지하실, 가격 : 13만9천9백불
5. 블루아 & The East Mall, 4 Br.Rm, 방갈로, 넓은땅, 100×160, 교통편리, Fire Place, 가격 : 17만5천
★드라이크리닝
1. 주매상 : 2천6백, 렌트 : 월 $1,000 3년, 순수입 : 월5천 가격 : 9만불
2. 주매상 : 1천5백, 렌트 : 월 $1,600 5년+5년 가격 : 7만불
3. 주매상 : $1,100 렌트 : 월 $1,100 5년+5년 가격 : 4만불


황용현
286－1548(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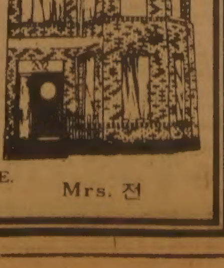

이헌영
686－0207(R)


강정숙
244－8918(R)

★도넛츠숍
1. 주매상 : 5천5백, 렌트 : 2천7백, 1년, 10년옵션, 13만불다운, 가격 : 19만9천
2. 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 12시간만 하는 도넛츠숍, 연순수입 : 5만불 가격 : 12만5천
★Hunts 베이커리
쇼핑센터내에 주매상 : 4천5백, 3만불 다운, 가격 : 13만5천
★쇼핑몰내에 Fish & Chips
주매상 : 약8천, 렌트 : $2,291,66 4년, 15만불다운, 가격 : 29만불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천5백, 5천5백, 6천5백, 1만4천, 1만6천.
★가게딸린 건물
주매상 : 3천, 5천, 6천, 7천, 1만천.
※그외의 여러 곳의 땅과 투자용 건물에 관해 문의하세요.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타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반지
목거리、팔지、목거리
B536-1692
H245-3539

"眞露소주 橫暴 막아달라"

8개地方회사 당국에建議
영세業所들 倒産위기

眞露소주가 올해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편승, 시장점유율을 지난78년 36%에서 무려10%가 늘어난 46%로늘려 영세한 지방소주제조회사를 크게위협하고있다고 7일 8개지방주류업자들이 당국을 상대로 대책을 호소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건의서에 의하면 소주시장신장률이 연평균5%가 적정선인데도 82년들어 당국은 적정선의 3배인 15%로 책정、주정을 배정하는 바람에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덤핑이 성행한다는것。이에따라 압도적인 독과점체제를 갖춘 眞露가 기존 서울·경기시장을 발판으로 경북·전남시장까지 파고들어 이곳 지방업체가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고 다른 지방업체들도 안절부절하고 있는 실정이라는것이다。

이같은 적정량이상의 물량배정은 지방업체의 재고량을 늘려 자금압박을 받게하는데 신眞露는 우세한 판매망및 막대한 선전비를 들여 군소업체시장을 잠식하고있어 결국 소비자보호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건의서는 밝히고 있다。

당초 소주업계는 70년대에 2백72개업체가 난립 ▲과잉공급▲출혈경쟁▲탈세행위성행▲불량주 범람등의 현상을 빚자 당국은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지난73년 1道1社원칙에 따라 자기시장권내에서 50%판매시장을보장, 소주업계 균형을 유지시켜왔는데 통폐합당시 眞露에대해서는 위스키제조면허를 내주는 조건으로 시장점유율을36%로 묶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 이균형은 깨지고 眞露에 절대유리한 경쟁조건을 주게된 결과를 빚게 됐다。

이밖에도 지방업자들은 ▲소주의 품질이 동일주정을원료로 똑같은데도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眞露만이 우수한양 과대광고를 일삼으며▲각거래처에 물량을 할당제공급하다가도 眞露이외의 다른 소주를 취급하는 거래처에대해서는 보복수단으로 공급을 중단하고 ▲眞露의 인기유지를 위해 고의로 품귀현상을 조작하는가하면 타사시장에도 眞露를 대량 공급하고 있으며 ▲眞露제품인「포도주」등을 도매점으로 하여금 眞露소주매출액의 10%를 강제로 인수케하는등 독점기업의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소주유통질서를 안정시키고 지방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위해 주정배당을 적정선으로 제한, 시장점유율을 고정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건의서를 낸 주조업체는 金福酎(大邱)·寶海(전남)·舞鶴(경남)·大鮮(釜山)·鮮洋(충남)·鏡月(강원)·寶盃(전북)·漢拏(제주)등 8개업체이다。

선호따른 市場확대
眞露측、橫暴아니다

이에대해 眞露측은『지금까지 官의 개입과 까다로운 酒稅法에 의해 진로소주의시장점유율이 신장되지 못했고, 피해를 본측은 오히려 우리였다』면서『소비자의 선택에따라 眞露소주가 많이팔리고 이에따라 시장이 확대되는것은 독과점의 횡포라고할수 없다』고 말했다。

眞露측은『지방소주업체들의 판매가 부진한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따른 주류소비감소때문이지 眞露의 독과점때문은 아니며 眞露소주에 곁들여 판매가부진한 위스키 포도주 과실주 쥬리아화장품등을 끼워파는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흩어진 落葉속 가을情趣 가득

아침최저기온이 섭씨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자 서울의 도심거리는 가로수들의 낙엽으로 뒤덮이고 있다。 고궁 뒷길에는 가을 정취를 찾아온 연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지지만 낙엽을 밟는 시민들의 가슴에는 또 한해가 저물어가는 아쉬움과 겨우살이 걱정이 겹치게 마련이다。

警官7명 解任조치
지하철工事場 찾아다니며 돈뜯어

치안본부는 7일 관내 지하철공사장을 찾아다니며 돈을 받은 서울城北경찰서 경비과장 金南培경정등 7명을 해임조치했다。

이들은 관내 지하철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교통편의등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한번에 2~5만원씩의 돈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해임된 경찰관은 다음과같다。

◇城北경찰서▲金南培경정▲崔鎭鎬순경▲孫連洙순경◇中部경찰서▲張佑相경위▲金永烈경위◇南大門경찰서▲孫泰完경위◇서울시경교통과▲具泰林경사

◇낚시史上최대…2m48cm의 제방어

국내낚시기록상 최고인 길이 2m48cm짜리 제방어(사진·동갈삼치과)가 濟州市서북방 10마일 해상인 冠脫島에서 잡혔다。이고기를 낚아올린 사람은 서울城東區華陽洞1-32의36 吳부일씨(39·무역업)。 미제트롤용 낚시에 30cm길이의 방어를 미끼로 삼았다。【濟州=聯合】

初·中병설 學校확대
문교부、「中學校없는 面」해소위해

문교부는 7일 중학교와국민학교를 함께 운영하는「초·중병설학교」를 점차 확대、내년에 40개교、84년에는 1백개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국의 초·중병설학교는 현재의 실험학교 8개를 포함、오는 84년까지 모두 1백48개교가 된다。

이에따라 중학교가없는 전국 3백4개면(面)중 절반이 무중학면에서 해소되고、이들 지역의 중학교진학률은 현재의 40%선에서 80%이상으로 늘어나게된다。

초·중 병설학교제도는 오는85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앞두고 국민학교는 있으나 중학교가없는 농·어촌지역에서 주로 실시되게된다。

사실상 9년제학교가 되는 이들학교에서는 국민학교 1~4학년학생은 일반국민학교와같이 학급담임제로 수업하지만 5~6학년은 중학교처럼 교과담임제로 수업하게된다。

문교부는 전남 麗川郡蓋島국민학교등 4개 도서벽지에서 병설학교를 실시해 본결과 ▲시설및 자료활용으로인한 예산절감 ▲학비부담경감 ▲교육여건의 개선과 지역사회발전기여등 큰 성과를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에 光通信시대

79년 光化門~中央局 첫試驗… 성과좋아
내년엔 九老-仁川까지 확대
TV전화·자택근무 實現가능

광(光)통신에의한 전화통화가 실용단계에 접어들었다。 광통신이란 종래의 구리(銅)케이블대신 유리로만든 전선(光섬유케이블)을 이용한 최신식 통신방식인데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지난79년9월 서울光化門~中央전화국간(2·3km)에서 이방식을 시험실시한뒤를이어 81년11월에는 九老~始興~安養간(12km)에서 실용시험、좋은성과를 얻게되자 내년부터 九老에서 仁川까지 구간을 확대、본격적으로 실용화하기로했다。 전기통신공사 분석에 따르면 光섬유케이블의 경우 현행 구리케이블에 비해 통화의 질이 현저히 좋고 전송손실이 적고 감도가 좋다는것。光섬유는 한가닥에 수백명의 동시통화가 가능하고 기존방식은 1.5~2km마다 전기를 사용하는 중계기를 설치해야하나 光섬유는 최고 수백km까지도 중계시설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거리 전송에 유리하며 시설비가 절약되는 잇점이 있다。

광섬유는 극히 정제된 양질의 유리로된 머리카락만한 굵기의 원통형으로 이제까지 음성이 수화기를 지난후 전기의 강약으로 바뀌어 구리선을타고 전달되는 것과는달리 광섬유를통한 음성이 전기로바뀌고 다시 빛으로바뀌어 상대편에 보내지고 보내진빛을 전기로 바꾸고 음성으로 재생하여 의사를전달하는 방식이다。

또 광섬유는 비전도체(非電導體)로 혼신이 생기지않고 다른 전력선에 의한 장애를 받지않아 종전의 동선처럼 쉽게 통화내용이 도청당하거나 혼신될 염려가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있다。

光통신은 많은사람들이 동시에 통화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서비스도 동시에 전송할수있어 이용자에게 전화와 동시에 데이터전송이라든지 TV전송등도 할수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섬유통신은 상대방의 얼굴표정을 직접보면서 통화할수있는 TV통화라든지 집안에앉아서 백화점에 있는 상품을보면서 쇼핑을할수도있으며 나아가서는 회사에 출근하지않고 집에서근무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회사로 바로 보내고 회사의 자료를 받아보기도 할수 있는 집안근무제도로 발전할 수있는 가능성까지지녔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앞으로 光섬유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여러가지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 통신도 개발사용키로하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대회때 세계각국으로 TV중계를 할방침이다。

그러나 광통신은 개발초기단계에서 빛을 만들어내는레이저光소자값이 비싸고 약간불안정한 약점이있으며 동선의 1만분의1굵기로 같은양의 정보를 처리할수 있으나 머리카락같이 가느다란광섬유를 접속하는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4~5년동안 연구를 계속해야 일반화돼선진대열에 낄수있을 것으로보고있다。

한편 미국은 이미각지방통신에 光통신을 널리이용하고있으며 오는 84년까지 워싱턴 뉴욕 보스턴을 연결하는 9백70여km의 구간에 7만6천km의 광섬유케이블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있다。

일본도 81년부터 12개구간(구간거리 1백6km)에 광통신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있고 영국에서는 올해안으로 15개구간에 약4백70km의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할계획이다。 【盧基昌 기자】

旅券사진을 컬러로
外務部 내년부터

외무부는 내년부터 여권사진을 컬러사진으로 바꿀방침이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7일 韓昇熙씨와 미스서울의 여권변조사건을 계기로 여권의변조여부를 손쉽게 식별키위해 ▲현재흑백과 컬러를 동시에 허용하고있는 여권사진을컬러로 통일시키고 ▲사진위에 부착하는 스티커를화려하게처리、출입국때 식별장치를통해 즉각진위를 판독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무부는 내년1월1일부터 얼굴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약간 측면에서찍은 컬러사진을 부착토록할계획이다。

어젯밤 歸國즉시 拘束
美서 추방당한「拉致소동」관련 韓昇熙씨

서울지검 공안부 李鍾燦검사는 7일밤 미스서울李淳福양(27) 납치소동과 관련 미국으로부터 추방당해 이날하오 KAL편으로 강제귀국한 韓昇熙씨(27)를 공문서변조및 동행사、여권법및 밀항단속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韓씨는 이날하오 金浦공항에 도착즉시 수사진에의해 서울지검에 신병이 인도돼 여권변조및 출국경위등에 대해 일차조사를 받았다。

"罪 달게받겠다" 韓昇熙씨

【로스엔젤레스支社=邊鴻鎭 기자】 강제추방당한 韓昇熙씨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李영표영사로부터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6일하오 2시에 출발하는 한국행KAL011편에 탑승、기내보안관 韓범준씨의 감시아래 서울로 향했다。

회색쉐터에 회색바지차림의 韓씨는 이날 매우 피곤한 표정으로 창백한 모습이었는데『모든 것이 李俞政양의 장난이었다。 한국에가서 법에따라 죄를 달게 받겠다』고 주장하고『현재 시애틀에 있는 두아이가 무척이나 보고싶다』고 밝혔다。

拉致소동 手配중 항공사職員 자수

미스·서울납치소동과 관련、수배중이던 汎亞항공사 영업과장 金昌慶씨(42)가 6일하오 경찰에 자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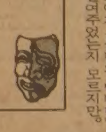
金씨는 경찰에서『지난 8월중순께 汎洋항공이사 尹興老씨(39·수배중)가 韓씨를 소개해주면서 미국에 갈수있도록 도와줄것을 부탁해 여권브로커 李敵씨(52·구속)에게 소개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淑大生3명 구속
집회·시위법위반

서울龍山경찰서는 7일 淑明여대 朴宋숙양(21·가정관리과4) 朴正順양(22·중문과4) 金利빈양(22·영문과3)등 3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5일낮12시45분께 교내도서관 4층에서반정부 유인물 2백여장을 뿌린뒤 마이크를 통해반정부구호를 외치며 교내시위를 선동한 혐의이다。

「工團 어머니」
輸出工團 부녀생활관 金英愛사감
지난 秋夕엔 지척인 집에도 못가고…



한국산업수출공단 부녀생활관의 金英愛사감(45·사진)은 이번추석에 공단과 지척인 서울九老區始興2洞에 집을두고도 다녀오지 못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3남매의 안타까운 모습이 떠오르긴 했으나 귀향을 하지못하고 부녀관에 주저앉아있는 70여명의 여공들을 떨쳐버릴수 없었다。

그들이 외로움을 느끼지않도록 신경을 쓰다보니 황금의 연휴가 훌쩍 지나갔다고 웃는다。 이런 열성과 자상함이 그에게「공단의 어머니」란칭호를 붙여주었는지 모른다지만。

金씨의 하루일과는 새벽5시30분부터 시작된다。 출·퇴근시간에 맞게 하루에 8번 식사를 차려내는등 3백여명이나 되는 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다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정도。 휴 시간이나면 공단본부 복지과에 나가 딸들을 위해 한가지라도 더 타와야한다。

하루중 제일 마음졸이는 시간은 밤11시에 시작되는 인원점검때。 전부 과년한 딸들인데다 절반가량이 산업체부설 야간학교에 다니기때문에 머릿수가 맞을때까지는 마음을 놓을수 없다。

「3회지각이면 퇴사」라는 엄한 규칙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스로가 잘알아서 해주어 고마울 뿐이라고 말한다。

金씨는 이같은 일과를 6년째 계속해 오고있다。 고혈압으로 남편을 잃고 학원을 경영하다 친지의 소개로 이 직책을 맡은後 3천여명이나 되는 딸들이 그의 품을 거쳐갔다。

현재 거느리고 있는 딸중엔 대학생도 3명이나 있고 장학생은 수두룩하며 미국에 유학간 딸까지있다。

6년이나 사감노릇을 해오다 보니 이젠 딸들의 얼굴만 보아도 그들의 마음가짐、건강을 짐작한다。 특히 식사량을 체크해 보면 속일수가 없다。

이처럼 신경을써오는동안 딸들을 ▲자기 충실파▲군것질 파▲의상파▲저축파▲학구파 등으로 분류하게 됐고 그 유형에따라 지도를 하게끔 됐다。

『어느 유형에 속하든 일하며 배우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사회에서는 왜 공단의 여공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金宗來기자】

개인택시 許可위한 경력증명서
돈받고 허위로 발급
釜山시내 택시회사全面수사

【釜山】부산시경은 7일 부산지역 개인택시신규허가과정에서 시내 일부운수업체들이 운전기사들로부터 수백만원씩의 커미션을받고 허가취득에 필요한 취업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대량발급해준사실을 밝혀내고 시내1백50여택시회사에 대한 전면수사에나섰다。

이같은사실은 부산시가 지난7월 마감한 개인택시신규신청자 1천7백여명에 대한 서류심사과정에서 61명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음이드러나 부산시경에 무더기고발함으로써 밝혀졌다。

경찰에 고발된 내용에 따르면 D택시의경우 자기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18명의 운전기사들에게 7년~10년이상 근속한것처럼 엉터리경력증명서를 무더기로 발급해줘 이들이 개인택시 면허자격 1·2순위에 포함되도록 한것을 비롯、20여개 택시업체들이 1~5장씩 허위서류를 발급해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S교통·D교통에서는 부산시여자개인택시운전사회간부와짜고 10명의 운전사로부터 한사람당 1백만원~5백만원씩받고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했다는것이다。【聯】

1億원臺詐取한 전銀行代理구속

【大邱】大邱시경은 7일 관계서류를 위조 7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거래자의 약속어음 3천만원을 현금과 교환 횡령하는등 1억원상당을 가로챘던 전 서울신탁은행 大邱大新洞지점 대부대리 徐潤洙씨(33)를 사문서위조、동행사 사기등 혐의로구속했다。【聯】

코피·맥주등못판다 人蔘찻집

인삼찻집에서 지금까지 변태적으로 팔아왔던 코피·맥주·우동등을 팔수없고 죽종류및 재래식차종류만을 팔수있게됐다。

보사부는 7일 국무회의에 제출、의결된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일부고쳐 지금까지대중음식점에 포함돼있던 인삼찻집을 별도영업종목으로 분리하는한편 영업의내용을 이처럼 제한했다。

～～ 1982～83학년도 ～～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개강안내 ●

◇기 간 : 1982년 9월25일부터 1983년6월18일까지(32주간)
◇시 간 : 매주 토요일 아침10시부터 12시까지
◇장 소 : DEER PARK PUBLIC SCHOOL
23 FERDALE AVE. (쎄인·· 클레어×영)
◇자 격 : 고등반부터 성인반까지
◇프로그램 :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기초반)
오전11시부터 12시까지 (연구반)
◇지도내용 : 기초반ー기본동작 I、화관무、아리랑환상곡、즉흥무
연구반ー기본동작 II·III、부채춤、살풀이、탈춤、장고춤
◇복 장 : 움직이기에 편한 복장과 덧신
◇수 업 료 : 32주간에 $160
4주간씩 나누어 등록하실 경우(시간당 10달러)
◇신청장소 : 위의 장소에서 9월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접수.
◇문의전화 : 김미영 : 499－5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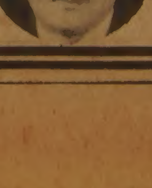
도 매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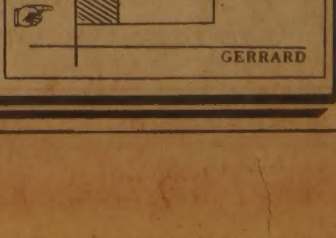
○ 채소 ○ 과일 ○ 화초

○최저가격
○최대봉사
○최고품질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 덕열





海外 스포츠

세계 最優秀복서 레너드

—링誌、전문가 50명투표로 選定

은퇴상태불구 2년連續차지

4體級석권노리는 아르게요 2위

82년의 세계최우수 프로복서는 누구일까。권위있는 권투월간지인 「링」은 세계각국 복싱전문가50명의 투표로 체급에 관계없이 우수선수25명을 선발했는데, 망막박리수술후 사실상 은퇴상태에있는 WBC웰터급 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를 81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 복서로 선정했다。

링誌 10월호는 지난해 래리·홈즈(WBC헤비급 챔피언)를 1백8점차로 따돌리고 1위를차지했던 레너드가 올해의투표에서도 4백90점으로 또다시 최우수복서로 뽑혔다고 발표했다。올해 2위는 지난해 마빈·해글러와 공동5위를 기록했던 알렉시스·아르게요(WBC라이트급챔피언)로 4백40점을 얻었다。

레너드는 올해 부루스·핀치를 3회KO로 이기고 로저스·태포드와의일전을 앞두고 망막박리수술을받아 현역에서 일단 은퇴, 82년 들어 한차례밖에 싸우지 않았으나 그의 인기는 여전하다。

레너드는 눈수술후 은퇴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바있지만 WBC가 아직도 그를 웰터급 세계챔피언으로 인정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레너드자신도 최근 링복귀의사를비쳐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레너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나는 생애최고로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있다。그러나 인간적으로 절친한 미들급챔피언 마빈·해글러와 단한차례 경기를 갖고싶다。해글러에 도전하는문제는 오는 11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4세에 아마복싱을 시작한 레너드는 77년 2월 프로로 데뷔, 79년 윌프레드·베니테스로부터 WBC웰터급 타이틀을 뺏었다。「돌주먹」으로 알려진 로베르토·두란에게 챔피언타이틀을 넘겨주었던 레너드는 두란과의 재대결에서 8회 KO승、다시 타이틀을 탈환했고 아유브·칼룰레(우간다)를 KO시키고 WBA주니어·미들급 왕좌에도 오른바있다。

지난해 9월16일에는 최대 라이벌인 토머스·헌즈를 KO로 눌러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79년·81년에 링誌선정 「올해의 복서」로 뽑히기도했다。

레너드의 인기는 올해로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치명적인 눈부상으로 앞으로 해글러와 한차례 경기를 벌인다하더라도 링생활을 오래 계속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83년의 최우수복서로는 올해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알렉시스·아르게요가 가장 유력하다。

아르게요(30·니카라과출신·美國서활약)는 금년안으로 WBA주니어·웰터급왕자 아론·프라이어(27·미국)에게 도전, 프로복싱사상 처음으로 4체급 제패를 노리고 있다。아르게요는 주니어·웰터급 정복 전초전으로 지난8월1일 케빈·루니(미국)에 2회 KO승을 거두고, 자신의 꿈에 한발 다가섰다。

아르게요는 74년11월 루벤·올리바레스를 13회에 KO시키고 WBA 페더급챔피언에 올라 4차방어에 성공하고 체중초과로 77년6월 타이틀을 반납했다。78년1월 알프레도·에스칼레라를 13회에 침몰시키고 WBC 슈퍼·페더급정상을 정복, 2체급을 석권했다。80년8월에는 보자·에드워드를 8회KO시키고 라이트급으로 올라, 81년6월 WBC 라이트급 챔피언 짐와트에 판정승, 프로복싱사상 6번째로 3체급을석권했었다。

올해 링誌최우수선수 랭킹 3위는 WBC헤비급 챔피언 래리·홈즈로 지난해 2위에서 한층급밑으로 떨어졌다。32세의 홈즈는 제리·쿠니를 KO로 물리치고 현재40연승 30KO를 기록하고있다。

홈즈에 이어 4위는 「링의 미치광이」란 별명을 가진 대머리 흑인복서 마빈·해글러。WBA·WBC통합 미들급챔피언인 해글러는 정확한생일날도 알려지지않은 베일에싸인 선수。한때 52년5월23일생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의 출생증명서에는 54년생으로 돼있다。

해글러는 80년9월 알란·민터를 3회에 KO시키고챔피언에 올라 4차방어에 성공했다。

WBC 슈퍼·웰터급챔피언 윌프레드·베니테스(푸에르토리코)는 비록 1무1패의 흠집이 있긴하지만 역시 천재적인 복서임에 틀림없다。15세때 산·후앙에서 프로로 데뷔, 이듬해 뉴욕으로 건너갔다。프로복서 라이선스를 얻기위해 18세로 나이를속인 베니테스는 75년3월 WBA 주니어·웰터급챔피언 안토니오·세르반테스를 꺾고 프로복싱사상 최연소 세계챔피언이 됐다。이때 나이는 16세 6개월。

지난 8월12일 멕시코시티 북서쪽 케레타로의 연습장으로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숨진 前WBC페더급챔피언 살바도르·산체스는 지난해 9위에서 올해 6위로 뛰어올랐다。아마추어서 14승을 기록하고 75년 16세때 프로로 데뷔한 산체스의 절정기는 81년6월 WBC슈퍼·밴텀급챔피언 윌프레도·고메스와의 대전。산체스는 32연속 KO승의 KO왕 고메스를 8회 KO로 물리쳐 세계복싱팬들을 열광시켰다。

생애통산 43승 31KO 1무 1패를 기록한 산체스는 고메스와의 재대결、아르게요에의 도전등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남겨두고 24세로 아깝게 요절하고 말았다。 【金仁奎기자】

◇링誌선정 82년 우수선수

순위 이름	나라	급	득점
①슈거·레이·레너드	미국	웰터	490
②알렉시스·아르게요	니카라과	라이트	440
③래리·홈즈	미국	헤비	386
④마빈·해글러	〃	미들	346
⑤윌프레드·베니테스	푸에르토리코	주니어·미들	310
⑥살바도르·산체스	멕시코	페더	296
⑦토머스·헌즈	미국	웰터	143
⑧마이클·스핑크스	〃	라이트·헤비	116
⑨윌프레도·고메스	푸에르토리코	주니어·페더	106
⑩제프·챈들러	미국	밴텀	85
아론·프라이어	〃	주니어·웰터	85
⑫드와이트·블랙스턴	〃	라이트·헤비	56
⑬에우제비오·페드로사	파나마	페더	33
⑭에드윈·로사리오	미국	라이트	20
토니·아얄라	〃	주니어·미들	20
⑯루페·핀토르	멕시코	밴텀	18
⑰사울·맘비	미국	주니어·웰터	12
⑱레이·만시니	〃	라이트	10
⑲데비·무어	〃	주니어·미들	9
⑳제리·쿠니	〃	헤비	6
㉑새뮤얼·세라노	푸에르토리코	주니어·라이트	4
로베르토·두란	파나마	주니어·미들	4
㉓도널드·커리	미국	웰터	3
보자·에드워드	우간다	주니어·라이트	3
㉕피피노·쿠에바스	멕시코	웰터	2
마이클·독스	미국	헤비	2

◇레너드

「질서體典」 카운트다운

14일 팡파르… 慶南 4개市 "준비完了"

◇모습드러낸 馬山 메인스타디움　하늘에서본 마산종합운동장。메인스타디움(왼쪽위)과 야구장, 실내종합체육관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88올림픽등 豫行연습

史上최대 1만7천健兒 참가

제63회 전국체전을 밝혀줄 성화가 8일 상오10시 강화도 마니산 첨성단에서 채화, 민족대제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오는14일부터 19일까지 경남 馬山을 중심으로 晋州·鎭海·昌原등 4개 도시에서 분산、개최되는 이번 체전은「화합체전·인정체전·질서체전」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으나 질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있다。

86년 아시안게임·88년 올림픽때 성숙된 국민상을 보여주기위해 이번 체전부터 질서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것。특히 이번 체전서는 경기장내 폭력을 뿌리뽑기위해 경기임원·코치 감독·지도교사등이 탈선할 때는 가중처벌하고 해당기관이나 학교장에도 연대책임을 묻기로했다。

경남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체전을 위해 慶尚南道는 7개 경기장을 신설했으며 나머지 30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보수、사용한다。

馬山市 산호동에 위치한 메인스타디움과 야구장은 이번 체전의 심장부 노릇을 하게 된다。메인스타디움은 1만1천3백여평에 3만5천여명을 수용하고 잔디 그라운드와 화학포장 트랙을 완비했다。육상장 옆에 위치한 야구장(7천1백평)은 1만5천명의 수용능력을 갖고 있다。在日 慶南도민회 성금 16억원으로 昌原에 건립된 사격장은 2만6천9평에 공기총 사격대 72대, 트랩식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晋州에는 4천6백평 규모의 승마장이 건설됐고 晋州선 명여상에 배구경기장、慶南大에 핸드볼 경기장이 각각 신축됐다。

이번 체전참가인원은 사상 최대규모다。전국 13개 시·도에서 1만6천38명、在日등 7개 해외동포선수단 3백50명、소년체전 수영종목의 6백45명、이북5도등 임원·선수는 모두 1만7천33명。

이번대회에 투입된 직접·간접비용은 3백46억1천3백여만원으로 시설에 1백44억1천만원、환경정비에 1백83억1천9백만원이 들었고、19억8천4백만원은 운영비로 쓰인다。

체전 개막식날펼쳐질 식전행사에는 39개교 1만7천8백명의 학생이 출연하여 매스게임·민속놀이·고적대·카드섹션·합창등을 다채롭게 펼친다。카드섹션은 韓一女實학생 3천8백40명이 각각 27장의 카드를 사용、1백38개의 원색화면을 펼치며 3천3백명의 합창단까지 가세、32계단 80m의 스탠드를 가득채운다。

이번 체전 기간중 4개도시에서 미술·사진전람회를개최하며 무용·음악·연극공연등 각종문화행사를 벌인다。馬山·晋州·鎭海 3개 도시에서 경축시가 행진을 벌이며 馬山 앞바다에서는 대규모선박퍼레이드를、晋州 남강서는 5천5백개의 오색등으로 이루어진 유등놀이를펼친다。

기념동산을 조성하는 것도 이번 체전의 특징。馬山종합운동장 뒷산 3천3백평 중앙공원에 각시도 동산을 만들어 서울 京畿 全北은 은행나무、慶南 慶北、忠北은 느티나무、釜山은 동백、大邱는 전나무、仁川은 백합、全南은 왕대、忠南은 능수버들、江原은 잣나무、濟州는 녹나무、해외동포는 느티나무를 고유목으로 정해심었다。

聖火 오늘 마니산서 採火

東西 두갈래로 全國일주, 奉送

올해 전국체전 성화는 체전사상 처음으로 東·西두갈래로 나뉘어 봉송、전국을일주한뒤 14일 상오 메인스타디움 성화대에 점화된다。

8일 상오10시 강화도 마니산 첨성단에서 채화된 점화는 경기도 金浦郡金浦邑沙隅里에서 두갈래로갈라져 서울-춘천-청주-대구-부산-마산에 이르는 제1코스(8백89km)를 1천2백88명의 주자들이 봉송하며 인천-수원-대전-전주-마산의 제2코스(1천5백75·2km)는 9백50명의 주자들이 성화를 중계한다。

성화는 13일 하오5시35분에 馬山시내 3·15기념탑앞에서 모여 하루밤을묵는다。

심판判定 불복 經理團 몰수敗

실업야구

3승으로 農協과함께 추계실업야구리그 공동선두를 달리던 강호 經理團이 7일 잠실구장서 벌어진 6일째 韓國化粧品과의 경기에서 심판판정에 불복、몰수게임패 했다。

經理團은 4-3으로 리드 하가운데 6회말 1死3루의 찬스서 후속땅볼로 홈인하던 3루주자 金大鎬이 주루선(3피트라인)을 벗어나 아웃당하자 판정에 불복、주심 金信河씨로부터 몰수게임패를 선언당했다。

獅子가 한발 앞섰다

2回 단숨에6點 곰을 9·0 大破

코리안시리즈

【大邱=方錫輪기자】 사자가 부진의 늪에 빠진 곰의 머리를 딛고 대망의 프로야구 첫 패권에 한걸음 앞섰다。시즌 종반에 접어들어 맹위를 떨치고 있는 三星 라이온즈는 6일밤 大邱홈구장에서 열린 코리안시리즈2차전서 2회말 난조에 빠진 OB선발 桂澄鐵로부터 4개의 적시타를 뽑고 포볼·폭투·적실·야수선택 각1개씩을 묶어 단숨에 6득점、대세를 결정지은후 李善熙 成洛秀의 계투와 야수들의 好守로 선제리드를 지켜 9-0으로 완승했다。三星-OB 3차전경기는 8일저녁6시반 서울서 열린다。

OB는 선발투수 桂澄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못해 투수교체시기를 놓치다가자멸、결승시리즈에서 작전의 허를 드러내 망신을 당했다。OB는 전후기리그 三星과의 대전서 가장많은 점수차로 패했다。

三星의 선발 李善熙는이날 6회동안20타자를 3안타3포볼로 선방、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三星은 2회 대량득점후運마저 三星쪽으로기울었다。OB의 모처럼의찬스가 병살타로 처리되는가 하면 4회초에는 5번金裕東이 친 홈런성타구가 펜스를넘어가는순간 三星외야수의글로브에 잡혔다。「곰의미련」이 또게임을망쳤다。大田홈구장의 1차전서 투수 姜哲元에대한미련을 버리지못해 三星에게동점타를 허용했던 OB가 2차전서도 컨트롤이 나쁜 선발 桂澄鐵을무리하게밀고가다헤어나기 어려운수렁에빠졌다。

OB의악몽은 2회말 三星선두5번 咸學洙의 중전안타로시작됐다。大田1차전서 3-0으로 앞섰던 OB에 투런홈런을터뜨려 추격의 포문을 열었던 咸學洙는 이날도 첫타석서桂澄鐵의 초구를 노려 중전안타로 만들었다。이어 등장한 6번 鄭鉉發이 桂의 난조를 틈타 포볼을 고르고 7번 朴貞煥의 타구마저 야수선택으로 처리돼주자는 일순간에 無死만루。

◇제2차전 ▲대구

OB(1무1패)	000	000	000	0
삼성(1승1무)	060	200	01×	9

아메리칸리그 決勝시리즈서 캘리포니아 2勝

【애너하임(캘리포니아) 6日발=聯合】美프로야구 캘리포니아·앤젤스는 7일(이하 한국시간) 어메리칸·리그 결승시리즈서 2연승을올려 어메리칸·리그우승에 1승을남기고있다。앤젤스는 6일 2차전에서 브루스·키슨의 호투와 강타자 레지·잭슨의 홈런에 힘입어 밀워키·브루어즈에 4-2로 이겼다。앤젤스는 6일 1차전서 8-3으로 대승했다。

◇전적 (2차전)

밀워키	000	020	000	2
캘리포니아	021	100	00×	4

▲홈런=레지·잭슨(3회·캘리포니아) 몰리토(5회2점·밀워키)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局第4譜 32~43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能旭
黑(4段) 姜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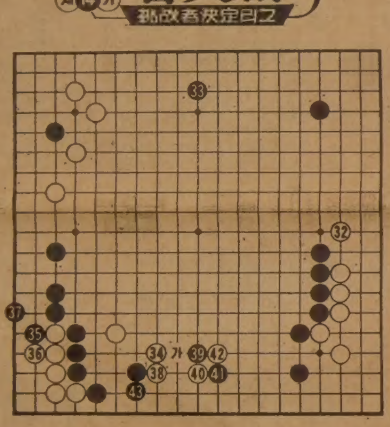
무너지는 黑勢力

白32까지 두어놓은 徐6단의 낯이 유난히 홍조되었다。黑은 당연히 하변에 가일수하여 양쪽절벽을 최대한 활용할것이니 그러면 「一當百」 대가를당할 도리가 없어보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黑33。하기야 이곳도 좌우동형의 중앙에 해당되는 요충이어서 놓칠수가없다。그러나 黑33은 「가」의곳을 지킬시기」라는 국후중론이다。당장 白34로 움직이고보니 그간 애써 구축한 黑의 세력이 일순에 무너질판、대세는 白의 수중에 들어간 느낌이다。

姜4단은 아차하면서도 우선 선수부터 잡으려고 黑35、37。하지만 이것이 또 시기상조、白에게 역을찔리고 말았다。黑35로 직접 39에 육박 공격할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白의 40、42의 호착을당하자 姜4단은 黑43에 내려서서 여전히 白에 후수삶을 강요한다。그러나 이수는 참고도처럼 黑1이하(黑7이음)로 온건하게 수습할만 못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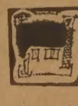
徐6단은 과연 귀를 살릴것인지 궁금하다。 【一凡】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안개속의 집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35>



수지는 그 선물상자들을 발로 걷어차다시피해서 방구석으로 밀어놓고는 잠깐 바깥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다。인기척은 들리지않고 이윽고 거실의 벽시계 치는 소리가 들렸다。벽시계는 한껏 느리게 기진한 소리로 열한번을 쳤다。

수지의 표정이 점점 멍해졌다。몰래 숨어들어온 집처럼 방안이 낯설게 느껴졌다。아、수지는 밑도 끝도없이 짧게 신음하고나서 허둥지둥 이층으로 올라갔다。그녀는 석이와 혀이가 한지붕밑에 숨 쉬고있다는 게 갑자기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아이들 방은 이층에 있었다。아이들은 이제 일곱살 다섯살이 아니었다。석이는 아홉살、혀이가 일곱살이었다。

각방을 쓰는 두 아이는 제각기의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두 방 다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그녀는 가벼운 두통을 느꼈다。

아이들은 항상 그녀가 개입할 여지없이 불구하고 건강하고 제멋대로였다。잠들어 있건만도 마찬가지였다。고약한 무력감이 나른하게 그녀를 휘감아왔다。

그녀가 이층에서 내려올때까지 기옥은 천기사와 바둑을 두고 있었다。그녀는 이유가 분명치않은 피해의식때문에 어깨를 모나게 추스르며 그들곁을 지나쳐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다。잠든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뽀뽀를 하거나 하다 못해 걷어찬 이불을 덮어주는 최소한의 엄마다운 짓도 안한 자신의 행동에 생각이 미치면서 그녀는 걷잡을 수없이 불안해졌다。

아이들 방에서뿐 아니었다。도처에서 정작 중대한건 빠뜨리고 허탕만 친 것 같았다。왜일까? 정말 중대한 건 뭐고 그런 게 실지로 있기나 있는 걸까?

그녀는 매우 바쁜 몸이었다。그녀를 필요로하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었다。일주일에 두번 지방대학에 출강나가는것 말고도 불우한 아동들에대한 자선과 구호를 목적으로 재력 있고 교양도 있는 여자들끼리 모인 여성단체의 장(長)이었다。그밖의 친목이나 해외교류를 목적으로하는 모임에도 몇군데 더 관계하고있어 그녀는 하루하루뿐아니라 시시각각을 남이 자기를 필요로한다는걸 의식하지않고 지낼적이 없었다。

오늘도 낮엔 그녀가 장으로 있는 여성단체와 모자(母子)결연을 맺은 고아원에다 성금과 피아노를기탁하는 전달식이 있었다。식같은건 생략하도록 해달라고 누누이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측에선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할수 있냐는 식으로 꽤 성대한 전달식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마치 학예회처럼 아이들을 때때옷 입혀 갖은 재롱을 다 떨게하는가 하면、좀 큰 애들에겐 손수만든 선물 꾸러미를 바치면서 감사합니다。이 은혜 기리기리잊지않고 훌륭한 사람 되겠읍니다하는 격식적인 인사말을 시키기도 했다。

그 지리한 전달식이 끝나자 곧 또 그녀가속한 아동교육학회 회원 몇명과 미리 약속한 회식장소로 가야만 했다。오랜만에 정담이나 나누자는 회식이었지만 다음 국제학회엔 누굴 보낼것인가、언제쯤 우리나라에 학회를 유치할수있을 것인가등등 공식회의보다 오히려 더 기탄없이 실질적인 의견을 나눌수있는 매우 유익한 회식이었다。

그때까지도 고아들로부터 받은 선물보따리는 결코 천덕꾸러기가 아니었다。그녀는 그 내력을 매우 수줍어하면서 은근히 발설해서 듣는 이를 크게 감동시켰고 한참은 것들을 값으로 따질수없는 귀중품 취급을 함으로써 자신을 선녀처럼 돋보이게했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6년간 정통 중화요리를 자랑스럽게
봉사 해 왔읍니다.

WE SERVE
KOREANS FOR
OVER 26 YEARS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석이 준비 되어 있읍니다.

영업시간 :
11 : 30am.
2 : 30 a.m.

SAI WOO

ALOHA RESTAURANT

영업시간 :
11 : 30a.m.
11 : 30p.m.

SAI WOO RESTAURANT & TAVERN
130 DUNDAS ST.W. TOR ☎ : 977—4988

ALOHA RESTAURANT & TAVERN
123A DUNDAS ST.W. TOR ☎ : 977—3438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흘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사진

새한칼라현상소 (R)654-5691 ·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1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갈비,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발식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일식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울식품 (동부)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터의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신속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신속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항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의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낙세대비
• 수이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illegible]

INVENTORY 인벤토리
[illegible]
전화 : 532-7711(B), 536-6250(R) [illegible]

인쇄

[illegible]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illegible] 493-8891 [illegible]

[illegible]인쇄소, 최신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illegible]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illegible]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황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illegible]
이상대, 이시우 사범 직접 지도
[illegible] : 2281 YONGE ST. 전화 : 483-1002
[illegible]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 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공진,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2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Store Manager 또는 남자 Helper 구함.
956 Brimorton Dr. (내방바람)

성실한 여자 캐쉬어 구함.
전화 : 923—8737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파타임)구함.
전화 : 977—5743

유경험자 헬퍼 구함.(그로서리)
주말 파타임 학생 헬퍼구함.
전화 : 597—1115

남자, 여자용 옷 재봉사 구함.
3년 경험자에 한함.
전화 : 366—3227 FIT LIZHT STUDIO

인쇄 기술자 구함.
Ambassador Printing
전화 : 656—2050 (마리오)

경험있는 남·녀 학생 Store Helper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625—1620

5년이상 제과기술직에 종사하시던 분을 찾읍니다.
전화 오전9시—4:30사이
749—1822 Mr. Kim

★가게에서 Helper해 주실
신체건장한 남자분 구함.(다운타운)

★Store Manager 구함(토론토 또는 시외지방)
단, 보증금 요함. 624—5817(Mrs.차)

Donut가게에서 밤일하실 (Full Time)
남자분구함. 저녁 10시—오전8시까지
전화 : 531—2689

웨이트레스 구함(Full Time)
전화 : 532—2727

입주하셔서 집안일 도와주실분
(중국가정임)
전화 : Mrs. Law 493—6190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양장, 재단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 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구직

Store Manager로 일하기 원함.
다년간의 경험 있음.
전화 : 533—2909(Mr. 오)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636 Vaughan Rd. #1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매매

Aurora—Variety Store, Apartment.
Variety Store.(800 sq.ft.) Basement stock Rm.(800 sq.ft.)
Apartment 4 Rms. + Bath Rm.
Asking price : $165,000 + all new equipment $20,000.
Phone. 889—8654 Mr. Jones.
W. R. Case Realty Ltd.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 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Bargain Sale !
★Dairy Case(우유제품 진열장) 6ft.
★2 Door 냉장고(Store용) 242—4712 Mr. Kim

Grocery & Variety(2층 살림집 2Bed Rms 포함)
리스 : 5년 + 5년 옵션, 렌트(2층포함) : $625(M. 오년간)
주매상 : $3,500 아스킹 : $28,000 전화 : 463—8674

Fast food business for Sale
토론토 중심가에 큰 Mall안에 있음. 윗층으로 120여개의 점포와 640여 아파트와 그리고 사무실들이 있음.
아스킹 $25,000 주매상 : $1,800~$2,000(Short hours)
전화 : 979—3224(Andy)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Hardware Store for Sale
Finch Ave.(토론토 북쪽지역) Very Good Business
(안정된 사업) 전화 : 654—6600(Domenic)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300 리스 : 5년
전화 : 783—2576

미용실 급매. 드라이어: 6개
의자: 3개. 주인이 아픈 관계로 급매코져 함(좋은 가격)
Gus 전화 : 921—5947

House for Sale
Thornhill에 있는 (Bayview & Willowbrook area)
—5 Bedroom 4 Bathroom 2 Fireplace Hollywood Kitchen
Family Rm. Finished Walk — out Basemt & Much more.
—Close to everything(School, Shopping Centre, etc.)
—Asking $199,500
Call Mr. Ivin Savov 889—3329

1981년 덧쥐 벤 추력(Ram)
6기통. 25,000Km. 가격: $5,800
전화 : (B)622—2643 (R)626—1843

Variety Store 급매
총각이 혼자 새로 Set up한 전망밝은 Variety Store.
살림집 포함. 개인사정으로 급매.
오직 관심있는 분만 내방바람.
230 Ontario St., St.Catharines, Ont.

Restaurant Tavern for Sale, with property
(Dufferin & Steeles area)
전화 : 661—7767(크리스).

Restaurant 급매(Full Licensed) 완전수리. 완전시설 갖춤.
좋은 위치와 좋은 조건(좌석 : 60여석). 좋은 전망이나 사정에 의해 급매코져 함. 전화 : 656—0456

Unique Country Store in the Hockley Valley
최근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알려진.
토론토에서 45분 거리의 휴양지.
주유소를 포함한 마켓. 그리고 큰 저택. 4개의 건물.
수영장 포함. 급매코저 낮은 가격으로 팔려고 함.
전화 : 519—822—8530 Betty or Lorne Patterson.
519—824—1123 Canada Trust Realtor.

세탁소 매매(pick—up) (Almar Cleaners)
640 Rogers Rd.(At two Block west of Keele)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포류갈 빵가게및 버라어스티가게. 지하실, 2층 아파트 세놓을수 있음 Asking 13만불(권리금+건물) 2만5천불 다운 페이 원함. 1602 Dufferin St. 전화 : 657—1554

영어쓰는 지역의 Super Market 팝니다.(몬트리올)
좋은 Lease와 낮은 Rent. 주매상: $16,000이상
윗층 Apt.도 Rent 가능함. 전화 : 514—481—3291 (Mr. 강)

Variety Store 급매(이윤좋은 가게)
주매상 $2,500 Rent $450 리스: 4년반
Asking: $12000+스탁 전화 : 654—4709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렌트 : $950
주매상 : 6,500. 리스 : 3년+5년(에토비콕지역)
전화 : 621—2059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Convenience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코저함. 주매상 $3,500—$4,000. Video 머신에서 주 300불 수입. 1—623—7000 Mr. 박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사무실렌트

사무실렌트(외환은행 3층)
블루아의 중심지 ★면적 : 890 sq.ft.
전화 : 535—880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방세 혹은 하숙합니다. 1 Bedroom
Near Dufferin Subway. 여성에 한함.
전화 : 279—2369(R) 533—2361(B) Mrs. 조

실비하숙 또는 방세 놓읍니다.
상세문의 오후 5시 이후 전화 : 530—1046

집렌트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2층 전체 방세놓습니다. 방2개, 응접실, 부엌, 목욕탕, 써니룸. 월 $450(모든것 포함)
전화 : 530—4321. 536—0754

집세놓음 (4 Bed Rms) mimico area.
중앙식 Air Con . 차고 있음. 교통 매우 편리.
Downtown에서 5분 거리 전화 : 368—9018, 366—0960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덕이)
전화 : 741—9170

이대환부동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한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의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진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성웅)

정손꽃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병헌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휜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수일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교민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불초 유광한 문안드립니다.
금번 교민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 저희 식당업을 더욱 번창 시키기 위하여 **일본요리사**와 함께 아래와 같은 **메뉴**로서 모시고자 하오니 많이 선전도 해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일 자 : 1982년10월12일(화)부터
시 간 : 7 Days a week(7 : 00A.M.～9 : 00P.M.)
(Q.E.W. 남쪽×HWY10부근에 한해 배달함)
식당명 : Century Burgers—Take out식당 (Table 5대 있음)
주 문 : 10분전에 전화주문 하시고 Pick up하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장 소 : 23 Helenest North. Missi. (Port Credit 기차역전 프라자내)
전 화 : 274—7010
배 달 : 6 : 30P.M～9 : 00P.M.

1982년10월8일

일본요리사 **다까하시**
한국요리사 **유광한 배**

메뉴

- Home-made 버거($1.40)
- Fish & Chips($2.75)
- Steak on Bun($2.90)
- Take-out breakfast($2.00)
- 스끼야끼($4.25)
- 스시(김밥) $2.90
- Shi-Ka-bab(일본식스타일) $3.25
- Ten-don(새우유부덮밥) $3.25
- 도시락 $3.00
- 카레라이스 $2.75
- 간짜장(양념만 팝니다. 5인분) 5인분 - $7.00
- 불갈비 1인분2대 $3.00
- 닭고기탕수육(Chicken balls) 4개 $1.40
- Chicken Fried Rice $2.50
- 에그롤 60¢
- 양념저린 피크닉용 고기
  - 갈비 Lb.당 $2.80
  - Steak Lb.당 $3.50
  - 닭고기 Lb.당 $2.25
- 손님께서 고기를 가지고 오시면 파운드당 75¢에 절여드립니다.